美國의 對韓政策展望

1972. 5.

序　　言

本資料輯에 收録된 論文은 当院이 強大国의 対韓政策研究를 為해 위촉하여 作成한 것이 아니고 美国 国務省이 変化된 情勢下에서 美国의 対韓政策을 樹立하기 為해 英国戦略問題研究所와 提携하여 모튼•아브라모비치 (Morton Abramowitz)教授에게 研究시킨 「韓半島의 解氷動向과 強大国関係」(Moving the Glacier:The Two Koreas and the Powers)를 訳載한 것이다.

当院은 統一政策 立案을 為한 主要指標로서 지난 2年동안 韓半島 情勢変化에 利害関係를 갖는 強大国의 対韓政策을 分析하고 展望하는데 많은 努力을 集中하고 있는바, 本輯에 収録된 「아브라모비치」教授의 論文은 内容上 当院의 研究目的에도 附合할뿐만 아니라 研究方法論에 있어서도 이 分野에 関한 政策메모랜덤을 作成해야할 사람들에게 많은 参考가 될 것으로 判断된다.

이러한 観点에서 当院은 本論文의 内容이나 提案自体보다도 本論文의 作成要領과 方法을 널리 紹介하는데 出版의 目的을 둔다. 当院은 研究用役을 맺고 있는 大学研究所나 学者들에게 「아브라모비치」의 研究方法論이 크게 活用되기를 期待하고 当院이 위촉하는 研究用役도 이러한 要領과 論理로 整理, 報告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目　次

序 文 ―――― 1
重大変化 ―――― 5
南北間의 勢力均衡 ―――― 5
国際的環境의 変化 ―――― 14
1. 日本의 韓国再進出 ―――― 15
2. 美国의 態度変化 ―――― 20
3. 中・蘇紛争 ―――― 27
4. 美・中共関係의 変化 ―――― 36
政策樹立者들에 對한 変化의 意昧 ―――― 39
1. 不安의 增加 ―――― 39
2. 永久的인 日－中共間 敵對関係 ―――― 43
3. 外交的 流動性 ―――― 46
南韓對北韓－相互間의 政策 ―――― 49
政策의 選擇 ―――― 63
1. 現美国政策路線의 계속 ―――― 64
2. 對日依存 ―――― 66
3. 外交 및 沮止策 ―――― 68

본 論文에 收録된 内容은 당원의 公式意見이 아님

重大変化

南北韓間의 勢力均衡

가장 根本的인 変化는 韓国이 非効率的이고 停滞的이며 分離된 對美依存状態에서 벗어나 軍事的으로 強力하고 経済的으로 정력적인 国家로 変貌했다는 事実이다. 바로 이 変化 —南北韓間의 均衡을 回復시키는 —야 말로 韓半島問題를 움직여 나갈 모든 存在可能性의 基礎를 이루고 있다.

朴正熙大統領 영도하의 大韓民国(ROK)은 상당한 政治的安定을 이룩하는데 성공했다. 주로 신속한 経済的発展을 達成하겠다는 国民들에 대한 公約과 強力하고도 説得力이 있는 反共主義를 바탕으로 하여 일종의 政治的総和가 탄생했다.
韓国을 西欧的인 民主主義国家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활발한 国内政治活動이 実施되고 있다. 지난번에 実施된 大統領과 国会議員選挙때 나타난 与野間의 伯中之勢가 이것을 잘 말해주고 있다. 韓国政治体制의 支柱는 專門的이고도 極히 有能한 民間 및 軍事政府組織体들이다. 韓国民들은 자기 자신들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들의 国内運命을 스스로 運営해 나가는데 있어서 더욱더 自信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이와같은 모든 사실에도 불구하고 韓国民들의 政治生活에서 나타나고 있는 결점들, 즉 엄청난 所得不均衡, 頻繁한 非民主的手段의 動員, 부패 및 파벌주의등을 看過해서는 안될 것이다. 平和的政権交替는 아직 한번도 없었다. 그러나 韓国은 장족

의 発展을 이룩했다. 経済成長은 계속되는 政治的安定과 보조를 맞춤으로써 経済는 政治를, 그리고 政治는 経済를 더욱 強化시키는 役割을 했다. 어떤 指標를 통해 보드라도 韓国의 経済成長은 인상적이 아닐 수 없다. 1964年 이래 実質国民総生産(GNP)은 매년 12%라는 놀라운 成長을 記録했다. 對外貿易은 量的인 飛躍을 보였고 工業生産은 年 약 20%의 成長率을 記録했다. 経済膨脹의 結実은 전국도처에서 목격할 수 있으며 또한 国民들의 消費水準과 그밖의 生活水準에서도 反映되고 있다. 물론 韓国은 그의 모든 経済問題点들을 解決하지는 못했다. 그중에서도 韓国経済는 심한 外債를 걸머지고 있으며, 더구나 이 外債의 大部分이 短期外債라는 事実이다. 이보다도 더욱 重大한 問題点으로서는 새롭고 번창일로에 있는 韓国의 産業들이 海外의 景気沈滞와 漸次 대두되고 있는 保護貿易主義에 대해서 脆弱性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問題点들은 급속히 成長하고 있는 모든 開発途上国家들에게 있어서 共通的인 問題이기도 하다.

北韓(DPRK)도 또한 많은 関心의 대상이 되고 있다. 金日成은 그의 모든 権力을 더욱 強化시켰으며 그의 地位도 확고부동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金日成도 政治的인 問題点들이 없는 것은 아니며, 革命을 등한시하고 나이많은 革命幹部들을 경멸하는 새로운 世代의 成長과, 보다 나은 生活水準을 渴求하는 오래전부터의 無言의 요구, 그리고 그가 実施하는 諸般改策에 대한 反對등 몇몇問題点들은 자못 심각한 것이다. 지난 수년동안에 粛清은 계속되어

왔으며 그가운데서도 지난 1968—69年 기간중에 軍首脳部를 사실상 거의 전부 粛清한것은 가장 큰 사건이었다. 어떤 때에는 끊임없는 粛清으로 인해서 政権의 원활한 機能이 장애를 받지 않을 수 없는때도 있었다. 이와같은 끊임없는 粛清은 또한 金日成으로 하여금 그의 親族과 側近者들에 대한 依存度를 더욱 높여주게 된 것으로 보인다. (즉 金日成의 弟 金英柱는 급속한 승진끝에 1970年에는 党内의 第6人者로 대두했고 金日成의 처 金聖愛도 1970年에 党中央委員会 委員이 되었다) 北韓에 대한 金日成의 이와같은 絶對的支配는 그가 물러간 후에 政治的安定과 政策의 一貫性에 대해 明白한 問題点들을 야기시키게 될것이다. 그러나 金日成은 아직까지는 그의 후계자문제를 對備해 놓고 있지않은 것으로 보인다. 金日成은 現在 59세에 不過하다.

休戦이후 10年동안에 北韓의 経済能力은 南韓의 経済能力을 크게 능가했다. 그러나 이러한 経済成長率은 지난 1960年代中葉에 특히 農業部門을 中心으로한 経済政策의 失敗와 労動力의 不足, 高度의 軍事費支出, 인접共産国家들과의 紛糾와 이로 인한 外国援助減少등의 결과로 인해 급격히 鈍化되었다. 이와함께 高度의 投資率과 防衛費支出도 계속적인 低生活水準의 요인이 되었다. 지난 몇年동안에 経済的能力은 개선되었다. 그러나 어느정도로 改善되었는지에 관해서는 지금현재 분명치 않다. 비록 北韓의 経済가 과거와 같은 成長率을 回復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현재 南韓이 달성하고 있는 経済能力의 빛을 흐리게 하지는 못할 것이다.

軍事面에 있어서도 南北韓간의 均衡은 급격한 変化를 보였다. 지난 1950年에 北韓의 兵力과 火力은 南韓보다도 倍로 우세했다. 더우기 그당시 南韓은 政治 및 軍事的으로 組織化되어 있지 못한 데다가 美軍도 撤収하고 없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実情은 그 当時와는 根本的으로 다른것이 南韓은 2½個師团兵力을 越南에 派兵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그후에 豫備役으로 1個師团이 再編成되었다) 1953年의 休戦実施以来 처음으로 韓国軍隊는 休戦線全域의 防衛를 独自的으로 담당하고 있다.

韓国軍의 現代化에도 不拘하고 軍事的均衡問題는 困難하고 말썽있는 問題로서 여기에는 끊임없는 주의가 필요하다. 수많은 어려운 問題들 —南北韓의 地上軍 및 空軍力의 質과 그밖의 実質的인 差異点들을 測定하는 問題— 로 인해 評価하기가 困難하다. 地理的인 不均衡 또한 重大한 問題로서 서울은 非武装地帯로부터 不過 30「마일」地点에 位置해 있기 때문에 기습공격에 대한 韓国의 相對的인 脆弱性은 더욱 增大되고 있다. 견해의 差異点들은 다음과 같은 問題들에 集中되고 있다. (1) 北韓側 威脅의 性格 (2) 그와같은 攻擊에 대한 中共의 支援可能性과 그 性格 (3) 南北韓軍隊의 戦力比較 그리고 本質的인 견해차이로서는 北韓에 대한 적절한 沮止策은 무엇이며 美軍戦闘部隊의 韓国駐屯 필요성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問題들이 있다. 韓国人들은 필연적으로 이러한 問題들에 있어서 보다 保守的이다.

(註 1 : 南韓의 政治와 経済간의 相互 聯関性에 관한 分析資料로

서는 데이비드•콜 (David Cole)과 프린스톤◦라이만 (Princeton Lyman)共著 『韓国의 発展：政治 및 経済의 相互作用』(「하바드」大学校出版部, 1971年 3月発行)을 참조할것

地上軍

韓国은 世界第 4位의 陸軍을 保有하고 있으며 그 兵力은 北韓보다 56만명 對 36만명으로 実質的인 優位를 確保하고 있다.[2]

3 外 金

韓国 全体人口의 절반에도 미달하는 人口를 가지고 있는 北韓은 그 兵力増強에 있어서 심각한 人力不足状態에 直面해 있다. 北韓은 AK—47小銃을 自体生産하고 있으며 個人武器와 로케트 및 迫擊砲에 있어서는 南韓보다 우세하나 韓国은 「탱크」에 있어서 北韓을 능가하고 있다. 상당수의 韓国軍隊는 비록 韓国과 地形條件이 다를 망정 越南戰에서 価値있는 戰鬪경험을 쌓았다. 일부 전문가들은 韓国軍이 北韓의 攻擊을 成功的으로 防禦할 수 있는 自身의 能力에 아무런 影響을 미치지않고도 그 兵力의 상당수를 減縮시켜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海 軍

南北韓의 海軍은 다같이 대수로운 상태는 아니며 海岸防衛程度에 不過하다. 北韓은 「오사.코마르」型 미사일艦 14隻을 保有하고 있어 약간의 攻擊能力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른다. 北韓은 또한 機雷敷設能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戰争이 発生할 경우 이는 困難한 問題를 야기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空 軍

北韓은 空軍力에 있어서만은 明白히 南韓보다도 상당한 優位에 있다. 北韓은 現在 약 1백대의 「미그－21」機와 70대의 「일류신－28」機들을 保有하고 있다. 韓国이 保有하고 있는 現代式航空機는 18대의 F＝4機와 77대의 F＝5機에 不過하다. 이 「갭」은 韓国이 現行의 美軍事支援計劃에 따라서 더많은 航空機를 導入하고 老朽한 F＝86機들을 代替시킴으로써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韓国은 地上에 있는 航空機의 脆弱点을 상당히 제거시키긴 했으나 아직도 夜間 및 悪天候飛行能力에 있어서 不足状態에 있으며 또 對空警報網도 未備한 状態이다. 그러나 東部아시아에 있는 美空軍力은 韓国의 이와같은 空軍力의 劣勢를 보충하고도 남는다.

大部分의 分析家들은 美国이 韓国에 대한 兵站 및 空中支援만 해준다면 『韓国이 서울以北에 대한 北韓의 攻擊을 自体防禦할 수 있다』고 여기고 있다. 그러나 韓国이 아무런 支援도 받지못할 경우 北韓과 中共의 共同攻擊에 直面하여 어느정도나, 그리고 얼마동안이나 自体防禦를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意見이 엇갈리고 있다. 北韓이 攻擊을 감행할 경우 蘇聯軍의 直接的인 支援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韓国人들조차도 極히 不可能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註2 : 兵力에 관한 数字는 『軍事均衡 : 1971—1972』(国際戦略問題研究所 : 런던) 47—48P를 参照한 것임. 越南에는 韓国軍 陸軍2個師団과 海兵隊1個旅団이 있음)

非正規戰

北韓은 間諜 및 게릴라浸透能力을 상당히 発展시켰으며 —철저한 訓練, 고도로 洗脳된 要員들, 快速艇 기타 — 1966—69年 기간에 이를 集中的으로 活用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北韓의 게릴라浸透努力은 失敗로 그쳤을뿐만 아니라 韓国의 正規軍과 豫備軍을 発展시키는 동시에 反共態勢를 더욱 強化시키는 結果만을 招来했다. 韓国의 成功的인 게릴라浸透封鎖努力은 보복보다도 防衛에 置重했으며, 특히 이러한 成功의 重大한 要因은 韓國国民들이 게릴라浸透者들에 대해 協助를 하지 않은데 있었는지도 모른다. 北韓은 1969年에 가서 대대적인 게릴라浸透努力을 포기하긴 했으나 언제라도 이를 재개할 準備態勢는 되어 있다. 韓国은 이 分野의 能力은 別로 発展시키지 못했으며 또 지금까지의 非正規戰努力도 成功하지 못했다.

独自的能力과 束縛

南北韓은 兩側이 모두 大規模攻擊을 감행할 能力을 가지고는 있으나 重要 強大国들의 支援을 받지못할 경우 지금 現在로서는 持久戰을 遂行할만한 能力은 없다. 北韓은 蘇聯이나 또는 中共의 兵站支援이 없을 경우 약 1個月 程度밖에 攻擊作戰을 持續하지 못할 것이다. 南北韓은 油類, 重装備의 교체, 그리고 新型航空機등을 모두 중요 同盟国에 依存하고 있는 実情이다. 韓国은 弾薬類도 美国에 依存하고 있다. 北韓은 空軍力의 優位와 非武装地帯의 서울近接등의 理由로 因해서 制限된 攻擊活動에 있어서는 약간 有

利한 位置에 있는지도 모른다.

蘇聯과 中共은 北韓이 攻擊을 받을 경우 金日成을 支援할 것이라고 宣言한바 있으나 金日成으로 하여금 먼저 先制攻擊行動을 取하도록 사주할만한 징조는 보이지 않고 있다. 韓国은 現在 北韓에 대한 先制攻擊을 감행하지 못하도록 美国으로부터 政治 및 軍事的으로 抑制를 받고 있다. 韓国이 장차 大規模 攻擊作戰을 감행한다 해도 이는 美国의 간섭을 排除하기가 極히 어려울 것이며 結果的으로 韓美関係에 危機를 招来케할 것이다. 비록 그렇게 重要하지는 않을지 모르나 그렇다고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는 안될 것은 韓国이 지금 이순간에 大規模攻擊行動을 감행할 경우 그것은 韓国이 지금까지 애써 쌓아온 国際的인 善意의 이미지를 霧散시키는 동시에 北韓에 대한 好意的인 이미지를 除去시켜주는 結果를 가져올 것이라는 事実이다.

韓半島의 武力競争

美国과 蘇聯의 軍事援助는 또한 南北韓의 攻擊能力을 높여 주었다. 蘇聯은 지난 1960年代中葉에 北韓에「일류신 - 18」機와 같은 武器를 제공함으로써 武力競争을 크게 부채질했다. 蘇聯이 그와같은 爆擊機를 제공했다는 것은 놀라운 事実이며 아마도 이것은 中•蘇紛争과 北韓을 中共으로부터 멀리 떼어 놓으려는 蘇聯의 希望에서 연유한 것으로 보인다. 美国은 朴大統領을 살해하려던 지난 1968年의 1.21事態와「푸에블로號事件 이후 攻擊能力을 가진 F=4 戰闘機 1個大隊를 韓国에 제공했다.

韓半島의 武力競争은 現在 고도에 達하고 있다. 美国은 韓国으로부터 1個師团의 美軍을 撤収시킨것과 관련하여 1971-75年 기간중에 韓国에 10億내지 15億달라 상당의 援助를 제공할 計劃이다. 이 援助의 総規模와 그 性格은 주로 美国議会의 결정여하에 달려있기 때문에 아직도 不確実한 状態에 있다. 援助의 상당부분은 撤収하는 美軍이 남기고갈 弾薬과 装備가 차지할 것이다. 또한 援助의 일부는 現在 南北間의 空軍力에서 나타나고 있는 不均衡状態를 是正하는데도 충당될 것이다. 韓国은 駐韓美地上軍의 어떤 追加撤収問題에 대해서도 美国으로부터의 追加軍援問題와 결부시키려 할것이 거의 確実하다.

北韓은 韓国軍의 상당한 現代化를 袖手傍観하고만 있을것 같지는 않다. 北韓은 좀 싫지마는 다시 蘇聯에 援助要請을 하지 않을수 없을 것이다. 더욱 重要한 것은 中共이 「미그—19」機와 「미그—21」機뿐만 아니라 石油類製品을 生産할수 있는 그의 能力이 拡張됨에 따라서 現在 蘇聯이 北韓에 제공하고 있는 軍事援助 가운데 상당부분을 中共이 대신 제공할 의사가 있다고 은근히 秋波를 던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만일에 그와같은 事態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北韓·蘇聯間의 관계와 또 어떠면 北韓의 行動을 拘束하고 있는 束縛에 상당한 影響을 미치게 될 것이다.

南北韓에서는 보다 自主的이고 보다 훌륭한 組織을 갖추는 동시에 보다 有能한 軍隊를 建設하려는 軍事力増強計劃이 꾸준히 계속되고 있다. 武力競争이 꼭 戦争을 招来하는 것은 아니지만 戦争

을 일으키는 경우는 종종 있으며, 특히 攻擊用武器에 대한 武力競争의 경우 戰争을 유발시키는 일은 많다. 韓半島의 경우 南北韓相互間의 적개심과 또 小規模 武力衝突의 可能性 및 그 現実的인 衝突可能性등으로 인해서 武力競争은 필연적으로 危険性을 内包하고 있다.

간단히 말해서 두개의 強力한 国家가 大体的으로 独自的인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韓国은 北韓에 대한 劣勢를 만회하고 지금은 北韓과 같은 수준에 있다. 모든 分野에 걸친 韓国의 発展은 한때 北韓이 가지고 있던 상당한 磁性과 北韓의 圧力, 선전, 그리고 甘言利説에 대한 韓国側의 脆弱性을 감소시켜 주었다. 韓国의 軍事力은 明白히 北韓의 水準에 육박하고 있다. 北韓은 韓国에 대한 중요 매력점 가운데 하나였던 経済成長의 優位도 상실했다. 이전에 韓国人들은 비록 터놓고 말하지는 않았지마는 北韓経済의 活力을 진정으로 부러워하고 있었다. 많은 韓国人들은 韓国이 統一이 아니고서는 沈滞에서 도저히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그러한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다.

国際的環境의 変化

4大強国들이 密接한 相互作用을 하고 있는 곳은 전세계에서 韓国밖에 없다. 그들은 제각기 韓国에 중요한 利害関係를 가지고 있으며 韓国은 그들간에, 그리고 그들과 南北韓의 同盟国들간에 중대한 問題点들을 제기시켜 주고 있다.

1. 日本의 韓国再進出

가장 根本的이고, 또 장기적인 眼目에서 볼때 아마도 가장 重大한 変化는 韓国이라는 무대에 日本이 主役의 하나로 다시 등장했다는 事実일 것이다. 1965年의 韓日国交正常化條約이 締結되기 전까지만 해도 日本은 美国의 韓国防衛를 위한 중요後方基地에 不過했었으며(지금도 마찬가지다) 그와같은 役割은「오끼나와」가 日本에 반환될 경우 더욱 重要性을 갖게 될것이다. 韓日国交「正常化」이래 日本은 韓国의 福祉에 있어서 중요하고, 나아가서는 필수불가결한 要素가 되었다. 日本의 援助와 投資는 韓国의 発展에 연료구실을 하고 있으며 日本은 전에 美国이 韓国에서 차지하고 있었던것 이상의 経済的役割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反對로 韓国은 美国다음가는 日本의 最大輸出市場으로 化하는 동시에 日本의 중요投資地域이 되었다. 韓国에 대한 日本의 経済的利害의 規模가 크고 또 増加一路에 있음에도 不拘하고 日本政府는 韓国民들의 민감성에 대해 조심해오고 있으며 韓国에 간여하는 態度에 있어서도 신중성을 기하고 있다. 그래도 日本의 経済活動은 韓·日양국에 利益이 되고 있고 또 急速히 発展할 것으로 보인다. 韓国에 대한 日本의 経済的役割이 비록 現在로서는 日本의 韓国에 대한 態度와 政策에 있어서 決定的要素가 되고 있지는 않지마는 멀지않아 그렇게 될날이 올 것이다.

増大되고 있는 日本의 韓国進出이 北韓과 中共으로 하여금 韓国이 日本의 영향권내에 들어가지 않을까하는 우려를 갖게 만든 것

은 전혀 豫想밖의 일은 아니다. 그와같은 우려는 韓国이 『日本自身의 安全과 不可分의 関係에 있다』고 선언한 지난 1969年 11月의 닉슨－사또(佐藤) 共同声明発表로 인해서 더욱 增大되었다. 北韓은 거의 매일같이 日本軍国主義의 위험성과 日本이 漸次的으로 韓国을 支配하고 있다고 욕설을 퍼부었다. 軍事的관련이 있는 사소한 問題 ―武官의 駐韓日本大使館派遣― 에 대해서 조차도 漸次 明白한 不安을 느끼면서 그것을 주시했다. 漸增하는 日本의 韓国進出에 대해서 온갖 비난을 퍼붓는데 있어서는 中共도 北韓에 지지않았다.[3] (그러나 北韓이나 中共은 그들의 行動이 바로 그들이 反對의 目標로 삼고 있는 日本의 軍国主義化를 事実上 促進시키게 될지도 모른다는 事実을 알고 있는지 어떤지는 分明치 않다) 韓国에 있어서의 日本의 活動은 이와같이 韓国問題에 관한한 不可分의 位置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동시에 그것은 또한 日本에 대한 다른 強大国들의 一般政策을 韓国問題의 한 部分으로 만들게하고 있다.

日本의 政策은 韓国에 영향을 미칠것이며 그것은 重要変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韓国의 事態発展도 또한 日本自身의 安全에 대한 戦略的概念과 나아가서는 日本의 外交및 防衛政策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비록 制限된 敵對行為나 또는 美軍 EL-121機격추와 같은 重大事件들은 어떤 환경아래서는 日本의 福祉와 安保에 대한 意味에 重대한 영향을 미칠수도 있을 것이며 이것은 필연적으로 日本의 防衛政策에 영향을 줄 것

이다. 韓国에 대한 美国軍事介入의 性質과 構成의 変化는 日本의 防衛政策에 더욱 더 重要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美国의 確固不動性과 信頼性에 대한 日本의 생각에도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 日本의 政治的気流가 日本의 계속적인 非核国家維持 方向으로 持続해 나가길 美国이 바란다면 韓国事態가 平穏을 維持함은 勿論 美国이 韓国을 防衛할 것이라는 점을 日本이 앞으로도 계속 믿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닉슨·佐藤성명은 日本에서 큰 政治的 騒動을 불러 일으키지는 않았다. 韓国에 관한 句節은 日本의 沖縄返還熱望에 대해 美国이 認応的態度를 보여준데 대해 「제스체의 일환으로서 挿入되었던 것이지만 韓国이 日本의 安全에 聯関性이 있다는 性格規定은 大体的으로 韓国에 대한 日本의 現在의 態度와 전혀 無関한 것은 아니었다. 韓国은 이미 『日本의 심장을 노리고 있는 匕首』라는 낡은 概念의 나라는 아니며 日本에게 있어서 戦略的으로 매우 重要한 나라라는 생각이 漸次 커가고 있다. (戦略에 관한 日本의 생각은 美国의 「아시아」駐屯이 감소됨에 따라서 漸次 増大되어 가고 있다) 그와같은 생각은 一般国民들 보다도 日本防衛庁内에서 強力하게 느끼고 있음이 아주 明白하다. 美国이 日本에 대해 韓国의 중요성을 끊임없이 되풀이하는 것은 日本 지도자들간에 이러한 경향을 더욱 높여주고 있다. 가장 분명하게는 経済的要因들이 戦略的聯関性을 결정적으로 結合시키게 될것이다.

日本의 現對韓政策은 本質的으로 短期的이고 反応的인 것으로서

日本의 現對中共政策과 매우 類似하다. 日本은 現在의 状態에 満足하고 있다. 그들은 韓半島의 緊張緩和를 願하겠지마는 現状維持 그대로를 기꺼이 받아들일 용의를 가지고 있다. 日本에서는 韓国의 統一을 크게 熱望하고 있지는 않다. 日本은 友好的인 統一韓国을 바랄지도 모르지만(이 問題에 있어서는 論難의 여지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으로서는 그와같은 方向으로 움직일만한 아무런 가능한 方法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日本은 現在 美国이 韓国에서 맡고 있는 役割에 대해 満足하고 있다. 美国이 遂行하고 있는 軍事的負担에 대해서는 日本政府도 그 必要性을 認定하고 있지마는 동시에 그것은 現在 日本이나 或은 그밖의 어떤 나라도 遂行할 생각이 없는 負担인 것이다. 日本은 現在 韓国民들의 敏感性과 日本에 대한 깊은 不信感, 그리고 日本国民들의 態度등으로 인해서 韓国에 대한 積極的인 軍事的役割을 遂行하지는 못하고 있다. 사실 韓国에 대한 美国의 엄청난 介入은 日本으로 하여금 韓国民들의 감정을 完全히 刺戟시키지 않고도 韓国에 대한 進出을 拡大시킬 수 있도록하는 큰 방패役割을 하고 있다. 日本은 韓国에 대한 그들의 增大一路에 있는 経済的役割이 長期的으로는 中共과 어떤 関聯을 가지게 될것인가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있다.[4]

日本政府는 韓国에 대한 経済援助이상의 支援에 대해서는 反對해오고 있다. (日本의 援助는 韓国이 그의 資源을 軍事的目的에 転用할 수 있도록하는 여유를 제공해 주고 있다.) 日本은 韓国

이나 또는 日本自体内에 어떤 根本的인 変化가 없이는 가까운 장래에 重要한 軍事的役割을 담당한다는 것은 不可能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日本이 軍事装備를 販売한다는 것은 비록 앞으로 数年後에는 可能할런지 모르나 지금 現在로서는 그것마저도 不可能한 実情이다. 日本의 政策樹立者들이 가까운 장래에 直面하게될 重大問題는 日本이 駐韓美軍의 追加減縮問題에 대해 어떻게 對処해야할 것인가 하는 問題가 될 것이다. 駐韓美軍 1個師団撤収問題는, 부분적으로는 韓国側의 부채질도 있었지마는 日本에서 이미 약간의 関心을 불러 일으켰다. 앞으로 駐韓美軍의 追加撤収時에 나타날 분위기와 이 撤収에 따르는 進行過程 如何에 따라서는 많은 問題들이 左右될 것이다.

日本政府는 北韓과 매우 制限된 関係를 維持해오고 있다. 貿易関係를 除外한다면 北韓과의 関係는 在日韓国人, 朝総聯, 및 韓国僑胞北送問題등에서 파생된 問題들 程度에 不過했다. 北韓問題는 中共問題와는 달리 日本国内의 政治的인 争点은 되고 있지 않다. 거기다가 日本에게 있어서는 北韓과의 関係를 改善해야 할만한 刺戟剤가 別로 없는 것이다. 貿易関係도 比較的 小規模로서 그것이 상당히 増加될 것이라는 展望도 別로 없다. 더욱 重要한 것은 北韓과의 関係水準을 높이려는 日本의 어떠한 企図도(예를 들어 北韓技術者의 日本入国許用과 같은) 즉각 韓国側의 激憤을 촉발시킨다는 事実이다. 日本이 韓国에서 차지하고 있는 役割을 감안한다면 北韓과의 関係改善을 위한 日本의 어떤 진정한 努力도 日本

에게는 有益하지 못할 것이다. 韓国에서 政治的인 変化가 일어나지 않는限 日本은 일부 日本人들이 바라는 것처럼 北韓이 非共産世界와 보다 많은 接触을 가지도록 끌어들이기 위해서 큰 파이프役割을 遂行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와같이 北韓에 대해 日本이 미치고 있는 영향이란 韓国에 대한 日本의 새로운 支配可能性에 대해서 北韓(및 中共)으로 하여금 갈수록 많은 두려움을 갖도록 만들어주고 있는 程度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註3 : 周恩来는「뉴요크。타임스紙 編韓副局長「제임스。레스톤氏와의 会見(1971年8月5日)때 日本의「아시아」役割에 대한 中共의 関心을 많은 美国人들에게 전달하도록 교묘히 利用했다.「뉴요크。타임스紙 1971年8月10日字 参照)

(註4 : 日本은 1971年8月에 열린 第5次韓日閣僚会談때 韓国에 또다시 2億달라에 달하는 借款을 供与키로 약속했다. 이것은 닉슨大統領의 中共訪問発表와 때를 같이한 것으로서 韓国에 있어서의 日本의 役割에 대한 中共側비난을 크게 強化시켰다.「제팬。타임스。위클리」, 1971年8月21日字 2面 参照)

2. 美国의 態度変化

美国의 韓国防衛公約은 1954年에 締結된 韓美相互防衛條約과 그後 歴代의 여러 美国大統領을 비롯한 美国高位官吏들이 発表한 여러 保障으로 구체화되었다. 이러한 保障의 背景에는 美国이 쏟아넣은 피와 돈으로부터 縁由하는 강한 感情이 作用하고 있으며 막

대한 経済 및 軍事援助計劃과 相当規模의 美軍駐屯이 그와같은 公約을 크게 뒷받침해주고 있다. 20年이 다 되어가는 오늘날에 있어서도 이 公約은 여전히 強力하게 維持되고 있지마는 이 公約에 대한 一般美国民들의 支持는 漸次 감소되어가고 있다. 거기에는 여러가지 原因이 있는바 새로운 世代의 進出(30세 이하의 美国人들에게 있어서 韓国과 韓国戦争은 아무런 意味도 없다) 海外介入의 縮小와 越南戦으로 야기되는 国際的諸義務, 그리고 美国自体内의 諸国内問題들에 대한 資金과 関心의 集中과 増大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諸要因이 미치는 영향은 적어도 앞으로 数年間은 계속될 것이며, 특히 第1項의 경우 그 영향은 꾸준히 増加될 것이다. 그러나 비록 美国의 公約에 아무런 変化가 없다고 할지라도 実際 눈으로 볼수 있는 이 公約의 具体的 証拠는 빠른 속도로 감퇴되어 가고 있으며 또 그 속도는 더욱 빨라질 可能性이 있다. 이러한 変化들은 美国国内의 여러가지 事態発展과 결부되어 美国의 公約에 대한 信頼性에 대해 심각한 회의를 제기시켜줄 可能性이 있다. 駐韓美軍減縮에 관한 몇차례의 検討에도 不拘하고 그 兵力水準은 지난 1954年以来 今年까지 때에 따라서 그 規模가 다르긴 하지만 2個師団 程度로 大略 같은 規模를 維持해 왔었다. 美軍중 일부는 언제나 非武装地帯에 配置되었었다. 지난 10年동안에 美国이 韓国에 상당規模의 空軍力을 保有하게 된것은 1968年의「푸에블로號事件 이후에 不過하다. 美国이 1970年에 日本에 있는 美軍基地施設들을 縮小시킴에 따라서 美軍戦闘機들이 韓

国에 追加로 移動되었다.

韓国으로부터의 美軍完全撤収, 특히 美軍戦闘部隊의 撤収는 오래전부터 北韓이 主張해오고 있는 한 重要目標이다. 이에 대해 韓国도 北韓에 지지않을 만큼 美軍戦闘部隊의 韓国駐屯 필요성을 철석같이 主張해 왔다. 韓国은 駐韓美軍減縮에 관한 極히 사소한 示唆에 대해서도 극렬한 反応을 나타내고 美軍減縮防止를 위한 모든 努力을 講究했다. 韓国이 지난 1965年에 越南에 派兵한것은 최소한 部分的으로는 그러한 観点에서 考察되어야 할것이다.

1971年에 美国이 駐韓美軍 1個戦闘師団을 撤収시킨 重要原因은 豫算上의 理由와, 또 한편으로는 美国이 海外問題에 대한 介入을 縮小시키고 있다는 것을 美国의 国内輿論앞에 証明해야할 필요성에서 取해진 것이었다. 韓国은 「닉슨•독트린」의 理論的根拠에 관한 중요 본보기가 되었으며 또 그것은 어느정도의 正当性을 가지고 있기도 했다. 美軍撤収에 대해서 韓国은 맹렬한 反応을 보였고 韓美関係는 거의 危機에까지 도달했었다. 韓国側 反応이 그와같이 강렬했던 것은 美国의 對韓軍事援助水準을 増加시키도록 하려는 目的에서뿐만 아니라 美国으로하여금 美軍残留兵力을 더이상 撤収시키지 못하도록 防止하려는데 그 目的이 있었던 것이다.

駐韓美軍 1個師団 撤収問題는 또한 美国에게 残留兵力의 再配置問題라는 또 하나의 重要決定事項을 안겨 주었다. 板門店이라는 조그마한 共同安全地域을 除外하고는 現在 非武装地帯 全域의 警備는 韓国軍이 담당하고 있으며 美軍残留師団은 後方으로 移動했다.

美国은 이제 敵對行為가 発生했을때 그의 地上軍을 投入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를 決定해야할 또 하나의 과제에 直面해 있지만 北韓側의 挑発行為에 대해 韓国側이 아무런 制約도 받지않고 對応策을 講究할 수 있는 可能性이 이전보다도 더욱 増大되어 있다.

兵力問題에 있어서는 美国에서는 많은 相衝된 要因들이 作用하고 있다. 韓国軍戦闘部隊의 越南継續駐屯은 美行政府의 融通性에 制約을 가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美国이 韓国에 대해 일련의 特別公約을 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었다. 美行政府는 韓国에 있어서의 美国의 地位変化가 앞으로 서서히 進行되기를 바라고 있겠지만 그 努力은 美国의 国内圧力에 어쩔수 없이 左右될 것이다. 더우기 行政府가 現在 그 理念으로 삼고있는 「닉슨 · 독트린」은 명백히 韓国에 알맞는 것으로서, 韓国이 括目할만한 発展을 이룩했기 때문에(그리고 美国에서는 「韓国의 成功」에 관해서 요란하게 선전되어 왔다) 韓国은 核保障과 계속적인 軍事援助이외의 援助도 必要할 것인가 하는 진정한 의문점을 제기시켜 주고 있다.

「닉슨 · 독트린」이 나오게 된 한가지 주요原因은 美国의 諸般国内的圧力, 특히 財政的圧力으로 인한 結果였다. 駐韓美軍 1個師団을 維持하기 위한 豫算額은 年間 約3億달라라는 엄청난 規模이다. 1個師団兵力을 撤収, 이를 解体시킬 경우 그 豫算上의 経費節減은 (이미 購入된 装備가 그 大部分을 이루고 있는) 軍事援助増額分을 適時에 相殺할 수 있게 될 것이다. 国防豫算은 軍部自体内 各軍間의 競争的인 豫算増額要求와, 또 国内問題解決에 보다 많은 資源

을 돌려야한다는 主張과의 對立등으로 因해서 앞으로 數年동안 계속적으로 큰 压力을 받게될 것이다. 이러한 压力은 특히 一般目的을 위한 軍隊의 軍事費支出에 있어서 강하게 느낄 것이다. 유럽이나 韓国이 国防省과 運営豫算局 (OMB), 그리고 議会내에 있는 豫算監視者들의 초점의 대상으로 될것이라는 것은 不可避한 事実이다(이것은 이미 어느정도 既定事実로 되고 있다). 이와동시에 유럽과는 달리 駐韓美軍 1個師団이 凍結状態에 있기 때문에 美陸軍도 韓国에 関心의 초점을 모을 것이다. 이 美軍1個師団兵力은 韓国으로부터 移動할 수가 없는 것이다. (또 유럽에서 服務하는 것은 韓国에서 服務하는것 보다도 더 낫다) 유럽이 主張하는 유럽駐屯美軍撤収 反對理由는 韓国의 反對理由보다도 더욱 다채롭고 많다. 美行政府가 가지고 있는 善意의 의도와 認識에도 不拘하고 美国의 一般国民들이 가지고 있는 現在와같은 態度에 어떤 変化가 일어나지 않거나, 또는 美軍継續駐屯의 必要性이 議会와 国民들에게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는한, 가까운 장래에 韓国으로부터 美軍戰闘兵力을 撤収시켜야 한다는 压力은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비록 駐韓美軍継續駐屯의 필요성이 議会와 国民들에게 명백하게 밝혀졌을 경우일지라도 그 期間은 不過 数年간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美国은 韓国에서 密着沮止策과 遠隔沮止策을 다같이 使用해오고 있으며 여기에는 防策兵力으로도 쓸 수 있는 使用可能한 兵力, 核武器使用의 可能性, 그리고 莫大한 兵力増強能力등이 包含되어 있다. 美軍地上戰闘兵力이 일단 後退할 경우 美空軍力이 유일한 密着沮止

策이 될것이다. 이와동시에 美陸軍은 그 大部分이 유럽에 配置되었거나 또는 유럽派遣을 위해서 豫備로 남겨져 있는 兵力등으로 構成된 総計 13.5個師団이나 或은 그 以下로 縮小될 것이며 또한 徵集도 中止될 것이다. 一般国民들이, 비록 規模는 작을지 모르지만 피비린내 나고 엄청난 費用이 들고있는 戰争에 대해서 실증을 느끼고 있는 그러한 政治的 분위기 속에서, 根本的으로 거리가 먼 遠隔沮止策이라는것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수 있을것인가?

환경은 바뀌겠지만, 그러나 만일에 韓国에 대한 戰争이 시작되고 또 여기에 中共까지 관계되었을 경우 美国이 그의 兵力이나 或은 戰術核武器를 使用할 것이라고 아시아関係国家들이 確信해도 좋을지 어떨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지 않다. 그들은 北韓이나 또는 최소한 北韓의 都市中心地들에 대한 美空軍力의 使用能力뿐만 아니라 그 長期的인 使用能力에 대해서 조차도 회의를 품고 있는지도 모른다. 北韓이 그와같은 회의를 갖고 있는지 어떤지도 問題다. 그러한 의문점들을 명백히 해두는것은 무엇보다도 重要하다. 北韓은 그의 外交政策의 核心的要素들을 美国에서 일반적으로 実施되고 있는것과 같은 뚜렷한 外交政策의 様式에 바탕을 둘 可能性이 적다는것은 事実인것 같다. 그들은 이점에 있어서는 지난 1950年에 큰 낭패를 당한바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美国의 政策樹立者들이 지금과 같은 韓国의 환경아래서는 遠隔沮止策의 効率性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음이 명백하다.

한가지 중요한 過渡的措置를 생각할 수가 있을 것이다. 즉 美国

은 美地上軍을 完全히 撤收시키는 대신에 美軍師団을 特殊旅団規模로 縮小시켜 이것을 서울과 非武裝地帯의 中間回랑에 配置시키는 것도 아주 가능한 일일 것이다. 이 措置는 防策兵力의 維持費用을 적게 하면서도 政治的인 好感을 크게 높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措置는 美国이 願하기만 한다면 韓国에 戰術用核武器를 備蓄시킬 수 있도록 만듦으로써 防策兵力을 더욱 強化시켜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措置는 상당한 期間동안 実施해도 좋을 것이다.

이 措置는 美地上軍을 韓国에 계속 駐屯시키기 위한 最善의 手段으로서 採擇될 수도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問題点이 없는것도 아니다. 美国의 軍部指導者들은 小規模戰闘部隊가 敵에 크게 露出되어 配置되어 있는것을 願치않을 것이다. 이와 비슷한 일은「베를린」에서 볼수 있는 일이지만 베를린의 防策兵力은 어떤 意味에 있어서는 露出狀態가 적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베를린에서의 敵對行為는 両大超強国간의 相互 核攻撃이라는 問題点을 즉각 提起시켜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韓国関係에 있어서는 그와같은 超強大国들간의 對決狀態가 즉각 대두될것 같지는 않고 그보다는 주로 独自的인 小強大国들과 對決하게될 것이다. 特殊旅団에 戰術用核武器를 提供한다는 것은 또한 美国大統領에게 深刻한「딜렘마」를 안겨주게될 것인데 이 경우 大統領은 美軍을 存續시키기 위해서는 그러한 核武器를 使用해야할 選擇問題에 直面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한편 韓国의 防衛能力은 이 旅団의 戰闘参加를 完全히 除外시켜줄

수도 있을지 모른다. 그밖에도 韓国에 있어서의 그와같은 沮止策의 一般的인 効率性에 관해서도 問題가 있다. 美国은 特殊旅団이 防禦兵力役割을 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과연 北韓도 그와 같이 생각할 것인가? 많은것은 적은 것 보다는 더 낫겠지만 金日成으로서는 旅団이나 師団이 別차이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것은 우리로서는 알수 없는 問題이다. 大部分의 問題는 事件의 분위기 여하에 따라서 크게 左右될 것이다.

3. 中◦蘇紛争

中◦蘇紛争은 韓国事態에 약간 相反되는 두가지 重大한 영향을 미쳤다. 그것은 感知되고 있는 韓国에 대한 威脅을 감소시켜 줌으로써 韓国内의 心理的 분위기를 바꿔주고 韓国의 自信力을 提高시켜주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었다. 이와 동시에 中◦蘇紛争은 또한 南北에 独自路線을 가져다 줌으로써 그러한 일만 없었더라면 金日成으로서는 상당기간 後 까지에도 不可能했을 行動의 自由를 누릴수 있게 해 주었다. 金日成이 独自的行動 —그의 友邦들 조차도 싫어하는 行動— 을 할수 있는 餘地와 또 그것을 추구할 수 있는 能力은 오늘날 韓半島의 平和에 대한 重大한 위협이 되고 있다. 中◦蘇紛争은 또 北韓이 그의 友邦国들로부터 軍事援助를 獲得할 수 있도록 하는 能力을 높여 줌으로써 韓半島에서 現在와 같은 武力競争을 더욱 부채질하는 結果를 가져왔다. (勿論 中◦蘇同盟関係에 금만 가지 않았드라면 北韓이 더욱 많은 軍事援助를 반았을 것이라고 主張할 수도 있겠지만 일이 반드시 그러한 方向으로만 움직였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

의 여지가 없지 않다)

中·蘇紛争은 韓半島에 대한 中共과 蘇聯의 態度에 대해 相異한 形態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물론 이것은 韓半島에 대한 蘇聯이나 或은 中共의 政策을 判断하는데 있어서 唯一한 要素는 아니다. 그러므로 中共과 蘇聯의 立場과 政策을 간단히 検討해볼 필요가 있다.

中共은 美国과 마찬가지로 韓国에서 많은 財貨와 피를 흘렸다. 1961年에 中共은 北韓과 相互防衛協定을 締結했다. 그러나 美国과는 달리 이 條約에 대한 느낌과 本質的인 중요성에 대한 감정은 일부 상당한 理由때문에 감퇴될것 같지가 않다. 그 명백한 한가지 理由는 近接性인바 中共은 瀋陽軍区에 그 어떤 다른 軍区보다도 많은 地上 및 空軍力을 保有하고 있다.(現在 이 軍事力가운데 일부는 주로 蘇聯을 目標로 하고 있다)

또 한가지 理由는 日本이다. 中共은 美国이 窮極的으로는 韓国과 東아시아 全体로부터 撤収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것 같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可能性이 濃厚하다. 그러나 中共은 北韓과 마찬가지로 日本이 東아시아에 남아 있게 될것을 잘 알고 있다. 日本이 韓国을 유린하게 될것이고 日本軍国主義가 蘇生할 것이라는 두려움은 中共으로 하여금 北韓에 대해 정신적인 紐帯感을 느끼게 해주고 있는데 이러한 紐帯感은 蘇聯과 北韓간의 関係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도 나타나지 못했던 것이다. 北京은 더우기 日本이 台湾問題에 介入하는 問題와 또 中国本土로부터 영구히 분리된 台湾国家의 創設可能性에 대해서 더

욱 우려를 하고 있다. 물론 이것은 中共이 優先順位를 어떻게 정할 것이며 그의 外交를 추구해 나감에 있어서 戰略上 그러한 問題들을 分離시킬 용의를 갖고 있느냐는 問題를 제기시키게 될것인데 바로 이 問題는 北韓을 비롯한 모든 関係当事国들의 関心事가 되고 있다.

끝으로 또한가지 理由는 中共이 모든 態度에서 보여주고 있는 蘇聯과의 鬪爭때문인데 이 점에 있어서 北韓은 中共에게 있어서 極히 重要한 存在이다. 中共은 共産世界내에 있어서 北韓의 정신적인 支持를 蘇聯보다도 더욱 필요로 하고 있으며, 1969年以來 蘇聯과의 関係가 극도로 悪化되었던 기간중에는 中共은 그동안 北韓과의 緊張됐던 関係를 改善하기 위해 많은 努力을 기울였었다. 이와같은 和解는 日本軍国主義에 대한 共通的인 関心에 그 特色이 있지만 中共이 和解를 促進하게된 중요 추진이유는 北韓에서 蘇聯과 맞설 수 있는 位置를 다시 確保해야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外観上으로 볼때에 中共은 北韓의 関心事와 物質的必要性에 대해서 蘇聯보다도 더욱 好応的인 反応을 나타낸것 같이 보이고 있다.

그러나 最近 数年동안에 北韓의 政治的인 重要性이 이처럼 增大되었다고 해서 金日成이 中共과의 関係에 있어서 無限한 權能을 쥐고 있다는 뜻은 아니다. 北韓의 勢力은 中•蘇関係의 状態如何에 따라서 크게 左右될 것이다. 그리고 또한 中•蘇関係의 状態가 어떻던지 간에 中共은 金日成의 侵略的인 行動을 支持 또는

사주함에 있어서 分明히 조심스러운 態度를 계속 維持해 나갈 것이다. 北韓의 好戰性이 그 절정을 이루었던 時期는 바로 北韓과 中共간의 關係가 極度로 惡化状態에 있었던 時期라는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않될 것이다. 北韓과 中共간의 友好關係가 最近에 다시 再開되었음에도 不拘하고 中共支援의 性質에 관해서는 이들간에 명백한 見解差異가 存在하고 있다. 北韓과 中共의 軍事 및 民間指導者들이 1970年中에 行한 相互間의 뚜렷한 発言들은 中共이 南韓의 어떤 好戰的인 熱望도 沮止할 결심이 서있지만, 이와 동시에 中共은 金日成의 어떤 好戰的인 行動도 支持할 정도까지의 範囲를 넘지는 않을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5]

中共과 北韓은 中共의 軍事支援問題에 관한 見解差異가 어떻던지간에 지금 現在로서는 根本的으로 理念的結合을 이루고 있다. 그들은 한결같이 修正主義를 맹렬히 反對하고 있으며, 平和共存論을 배격하는 동시에 人民戰争論과 美帝国主義에 대한 汎世界的인 闘争의 절대성을 열렬히 主張하고 있다. 毛沢東이나 金日成이 무대에서 사라지고 또 中共이 중대한 核能力을 確保하게될 경우 이들 두 나라나 또는 그 어느 한쪽의 宣言的政策이 変更될수도 있을 것이라는 可能性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中共이 평소 発表하는 警告가 実質的인 行動을 随伴해왔다는 점을 감안해 볼때에 앞으로 中共이 金日成의 보다 好戰的인 態度도 支持할지 모른다는 可能性을 全혀 도외시할 수도 없을 것이다. 大部分의 모든 問題들은 北京을 비롯하여 越南戦이 어떤 方向으로

매듭지어질 것이냐는 問題를 包含한 기타 여러地域에서의 事態発展 如何에 크게 左右될 것이다.

한편 蘇聯은 北韓과 国境을 接하고 있음에도 不拘하고 이 地域의 安全措置의 필요성에 대해서 안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蘇聯은 極東地域의 蘇聯領土에 오랫동안 大規模兵力을 維持하지 않았었다. 最近에 蘇聯이 이 地域의 兵力을 크게 增強시킨것은 蘇聯•北韓国境의 安全을 우려해서가 아니라 中•蘇紛糾와 関聯이 있는 것이다. 蘇聯은 그들과 国境을 接한 北韓이 蘇聯에 友好的인 共産国家이기를 分明히 願하고 있다. 蘇聯은 北韓과 相互防衛條約을 맺고 있으며, 北韓에 대한 蘇聯의 武器援助의 量과 種類, 그리고 借款額数등은 어느정도 中•蘇紛争과 関聯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韓半島에서 일종의 勢力均衡을 維持해나갈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 地域에서 現在 蘇聯이 取하고 있는 政策의 중심점은 慎重性에 있다. 蘇聯은 韓国戦争의 경험을 되풀이할 생각은 조금도 없으며 敵對行動이 재발할 경우 美国이 核武器를 使用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푸에블로號事件과 EC—121機 격추사건때 蘇聯이 보여준 態度는 蘇聯이 얼마나 不安感을 가지고 있으며 이 地域에서 명백히 慎重한 政策을 遂行해 나가고 있다는 事実을 밝혀준 実例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은 蘇聯이 이地域에서 모든 緊張状態를 회피하는것만을 반드시 願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않된다. 1965年부터 始作된 蘇聯과 北韓과의 和解는 韓国에 대한 金日成의 侵略政策의 길잡이 노릇을 했다.

蘇聯과 北韓의 政策들은 根本的으로 相衝되고 있다. 韓国統一問題는 越南의 統一問題나 거의 마찬가지로 蘇聯의 利害関係로 봐서는 決定的으로 副次的인 問題인 것이다. 蘇聯은 그가 韓半島의 統一을 支持하고 있으며 또 그것을 위해 物質的인 支援도 提供할 것이라고 입에 발린 소리는 하고 있으나 北韓이 主張하는 方法의 統一을 支援하기 위해서 큰 모험을 치룰 생각은 없는 것이다. (아마 中共보다도 더 그러한 생각이 없을 것이다) 더우기 蘇聯은 金日成의 지나친 冒険主義가 韓美両国 또는 韓国側의 報復을 불러 일으켜 이것이 結局엔 蘇聯의 介入까지 誘発시키게된 事態로 発展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理由때문에 蘇聯은 駐韓美軍撤収가 가져올 脱安定的 영향에 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른다. 1969年에 있었던 中共과 北韓간의 和解에 대해서 蘇聯이 우려한 理由 —事実이든 아니든 간에— 가운데 하나는 그 당시 北韓이 가지고 있던 挑発政策을 中共이 더욱 사주하지나 않을까하는 두려움에서 기인한 것이다. 蘇聯・北韓防衛條約締結 第10周年紀念을 맞이하여 蘇聯은 이 條約이 帝国主義에 대한 闘争에 있어서 『調整된 行動』을 取하도록 規定하고 있다고 指摘했는데 이것은 그들이 美・蘇간의 衝突을 가져올지도 모를 北韓側의 어떤 一方的인 行動도 反對한다는 것을 쉽게 暗示한 것이었다.[6]

다른 強大国問題에 관해서 볼때에 韓半島는 蘇聯의 對日本観에 있어서 重大한 役割을 하지 않을 수 없다. 歴史的인 理由하나만 보드라도 蘇聯은, 특히 美国이 韓国에서 撤収할 것으로 보이고 있

는 現時点에서, 韓国에 있어서의 日本의 活動再開에 関心을 갖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또한 長期的인 안목에서 볼때에 蘇聯은 또 韓国에 있어서의 日本의 增大一路에 있는 役割, 특히 軍事的役割의 대두가 北韓으로 하여금 攻擊的인 行動을 取하도록 促進시킬지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金日成이나 毛沢東보다도 理念的인 동기가 極히 약한 蘇聯指導者들은 韓半島에서의 緊張状態를 悪化시킴으로써 日本의 軍国化를 더욱 防止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認定하고 있을런지도 모른다. 北韓側이 좀 더 宥和的인 態度를 取해준다면 그것은 美・日同盟関係를 分裂시키고 日本의 中立化를 促進시키려는 蘇聯의 努力에 도움을 줄수도 있을 것이다. 北韓에 대한 蘇聯의 見解는 日本의 役割에 대한 北韓側의 態度와 中・蘇紛争에서 北韓이 차지하는 重要性如何에 따라서 형성될 것이다.

(註5 : Peking Review XIII 15號 (1970年 4月 10日字) 5～14 P.P 및 33號 (1970年8月14日字) 24～30 P.P 参照)

(註6 : U.S Foreign Broadcast Information Service 刊 『Soviet Union』誌 Vol. 111, NO.131 P.P(8-C10. 및 NO. 132 P.P C8-C10 参照)

北韓은 中・蘇紛糾에 대해 相極的인 態度를 取하고 있음이 明白하다. 北韓은 中・蘇紛争이 革命勢力의 對美闘争力을 弱化시킬 것이라고 強力하게 主張해왔으며, 越南에서 對美『統一行動』을 展開해

야 한다는 主張에 있어서는 自他가 認定하는 典型的인 代表者였다. 金日成은 韓国에 대한 그의 心理的威脅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中•蘇関係가 改善되기를 바라고 있음이 確実하다. 그러나 中•蘇紛争은 한편으로는 北韓의 独自路線과 이들 兩大友邦에 대한 北韓의 영향력을 높여주는 結果를 가져다 주기도 했다. 즉 그것은 金日成으로 하여금 世界革命의 唱導者兼 이에 대한 積極的인 後援者로서의 重要한 役割을 自処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는데 이것은 確実히 그의 구미에 당기는 일인 것이다. 金日成의 後継者가 누가 되던지간에 그들은 独自路線을 開拓해 나갈 것이며 執権중인 朝鮮労動党의 内政問題에 대한 蘇聯이나 中共의 어떤 간섭에도 確固히 反對할 것으로 보인다.

北韓이 어느나라에 自身의 窮極的인 安全이 달려있다고 생각하고 있는지는 確実치 않다. 물론 中共은 北韓을 파멸로부터 구출해 준바 있다. 金日成의 中共과의 理念的인 類似性, 修正主義에 대한 反對, 그리고 日本에 대한 두려움등, 이와같은 모든것은 그의 利害関係가 中共과 상당히 一致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金日成은 中共이 상당規模의 核戰力을 確保하게될 경우 韓国에 대한 自身의 目的을 더욱 추진할 수 있는 진정한 可能性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더우기 金日成은 大部分의 蘇聯外交政策 특히 分断国家에 대한 外交政策이 특히 그의 비위에 거슬리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独逸問題에 대한 蘇聯의 外交政策은 金日成이 反對해 마지않는 現状凍結에 目標를 두고 있다. 또 蘇聯이 一般的으로 強調하고 있는 平和共存論은 金日成의

革命的熱情과도 相衝되는 것이다.

兩大共産隣接国家 사이에 끼어있는 北韓의 態度는 지난 10年동안에 나타났던것과 마찬가지로 流動的인 것이 될것같다. 지금 現在는 中共이라는 演技者가 우세한 立場에 있으며 蘇聯과의 관계는 상대적으로 감소되었다. 가장 특출했던 일은 1971年8月6日에 金日成이 美•中共정상회담에 대해 찬사를 보낸 것인데 이것은 越盟이 하지 못한 일이다. 따라서 蘇聯은 이러한 理由로 北韓을 루마니아와 거의 같은「카테고리」로 보게 되었다.[7] 中共首相 周恩来는 바로 그전날 異例的으로 中共에 대한 北韓의 重要性을 強調하면서 많은 美国人들을 상대로 北韓의 立場을 두둔했다.[8]

그러나 北韓은 적어도 지금 現在로서는 蘇聯의 兵站支援없이는 그 軍隊를 維持해나갈 수 없는 実情이다. 北韓은 또한 韓半島에서 敵對行為가 発生할 경우 蘇聯의 核保護가 北韓에 대한 韓•美兩国의 侵攻이나 或은 美国의 戰術用核武器使用에 대한 沮止手段의 役割을 해줄 것으로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蘇聯에 대한 이와같은 依存性은 中共이 新型航空機의 大量生産国이되고 상당한 核戰力을 保有하게될 경우 바뀔 것이다. 그러한 時期는 그리 멀지않을 것이다.

(註7 : 金日成은 1971年8月6日 平壌에서 開催된 前캄보디아国家主席「시아누크」公을 위한 환영군중대회에서 닉슨大統領의 中共訪問에 관해 가장 有利한 해석을 했다. 그는 닉슨大統領이 『白旗』를 들고 北京을 訪問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英国 BBC放送局刊 Summary of World Broadcasts FE/3756 PP.A3—A12参照)

(註 8 : James Reston 과의 記者会見 이 記者会見은 8月 5日에 있었으며 8月 10日까지 보도되지 않았다)

4. 美・中共関係의 変化

이 마지막 変化는 모든 変化들가운데서도 가장 最近의 変化이지만 닉슨美大統領의 中共訪問発表와 더불어 갑자기 놀라운 段階에까지 도달하게 되었다. 이 変化는 닉슨行政府의 등장과 더불어 시작되었는데, 그것은 太平洋地域에 있어서의 美国의 役割과 또 中共威脅의 性格에 관해서 現在 美国内에서 나타나고 있는 思考方式의 変化의 일부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사실 美・中共関係의 改善은 「닉슨・독트린」의 필연적인 帰結이다. 이「닉슨・독트린」은 美国이 그의 公約을 충실히 遂行해야 할것인가 或은 안할 것인가의 決定에 直面할 可能性을 減少시켜줄 것이다. 貿易 및 旅行에 관한 對中共制限措置의 완화, 台湾地域駐屯美軍의 減縮, 그리고 美・中共関係에 관한 새로운 美辞麗句등, 이 모든것은 美国의 對中共政策에서 現在 展開되고 있는 한 部分을 이루고 있다. 핑퐁外交와 앞으로 있을 닉슨大統領의 中共訪問은 이러한 여러 関聯問題들을 全혀 豫見할 수 없는 心理的次元위에 올려놓게 되었다.

現在 進行되고 있는 美・中共関係의 変化를 알지 못하고서는 장차 美・中共関係가 어떻게 展開될 것인가를 自信있게 말하기는 어렵다. 解氷의 개시와, 나아가서는 닉슨大統領의 中共訪問이 実現된다고 해서 그것이 곧 美国과 中共이 그들간의 関係를 진정으로

解決할 수 있다거나, 或은 한걸음 더 나아가서 그들간의 見解差異를 現実的으로 解決할 수 있는 能力까지 発展시킬 수 있으리라는 것을 반드시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美国과 中共간에는 많은 對立点들이 가로놓여 있으며 事件에 따라서는 그것이 곧 兩国의 善意마져 쉽게 害칠수 있는 素地를 안고 있다. 韓半島는 重要紛争地域의 하나에 不過한 것이다. 한편 周恩来도 認定하고 있듯이 韓半島는 敵對行為의 可能性이라는 見地에서 볼때에 가장 위험한 地域의 하나임에는 틀림없으나[9] 그렇다고 해서 美·中共간의 雙務的関係에 있어서 가장 重大한 地域도 아니다. 이 重大한 地域은 물론 台湾이 될것이며, 두나라는 이 장애물로 인해 쉽게 충돌할 수도 있을 것이다. 大部分의 問題는 美·中共関係의 状態如何에 따라 左右될 것이다.

그러나 美国의 對中共関係가 비록 앞으로 数年内에 実質的으로 改善되지 않는다고 하드라도 20年간에 걸친 對決状態의 強度는 상당히 완화되었으며, 닉슨大統領의 中共訪問과 이 地域에 있어서의 美軍駐屯減縮등은 이미 그것을 実質的으로 反映하고 있다. 美国은 中共의 軍事行動可能性과 그 切迫性에 관한 생각을 상당히 바꾸었다. 이와같은 새로운 態度는 東部아시아의 여러나라들 그리고 強大国들 및 그 所属国들이 품고있는 모든 생각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最近까지만 해도 大部分의 「아시아」国家들은 美·中共関係의 強力한 敵對状態가 영원히 계속될 진리라고 생각해왔었다. 이에 따라서 그들의 諸般政策과 心理的態度들도 이러

한 狀態와 連結지어져 있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이러한 敵對狀態가 영구적진리라는 사고방식을 더이상 받아들일 수 없게 되었으며, 따라서 그들의 外交政策에 再評価를 가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닉슨大統領의 中共訪問은 아마도 그와같은 再評価의 緊迫性을 促進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갈지도 모른다. 이러한 変化로부터 파생된 落塵은 이미 南北韓에서 나타났다.

(註9 : 周恩来는 日本農業代表団과의 会見에서 그와같이 말했는데 이것은 日本新聞들에 널리 보도되었다. 朝日新聞 1971年5月9日字参照)

政策樹立者들에 대한 変化의 意味

이 問題에 관해서는 이미 前項에서 약간 言及한바 있다. 여기서는 韓半島問題에 있어서 나타난 諸変化들을 包括的으로 考察하고, 美国의 政策樹立者들이 韓国問題를 검토할때에 一見해야할 問題에 초점을 모으려는데 그 目的이 있다.

1. 不安의 증가

韓国에 있어서 平和와 安定을 維持하기 위한 構造는 変化하고 있으나 南北韓간의 緊張된 対決状態나 또는 기본적인 敵対関係에는 아무런 変化도 없으며 武力競争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이제 우리는 韓国자체의 힘이, 그리고 이 힘이 어떠면 이다음에 日本이 제공하는 어떤 形態의 公約으로 더욱 強化된 가운데, 北韓의 어떤 攻撃에도 対処해야할 가장 重要한 沮止策이될 時期로 접어들고 있다. 그러한 時期로의 転換은 二段階期間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첫째는 現地 美軍沮止策의 減少이고 그 둘째는 美国의 根本的인 遠隔沮止策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転換期間은 敵対行爲의 危険性이 增大하는 期間이 될 수도 있고 或은 되지 않을 수도 있으나 그것이 極히 不安定한 期間이 될것만은 틀림없다.

첫번째 경우의 転換期間이 길면 길수록 韓国이 北韓에 대한 그의 利点을 살려 그의 相対的인 地位를 強化시킬 수 있는 時間이 그만큼 더 길어질 것이다.

이 転換期間에 있어서 不確實한 重要問題는 北韓이 어떤 생각을

갖느냐는 문제이다. 美国의 対韓公約에 대한 信頼度가 美国의 諸般 国内事態発展과 美軍減縮등으로 인해서 점점 損傷되어 가고 있는 현재와 같은 환경아래에서, 韓国의 힘과 결부되어 있는 美国의 沮止策이 現地에서는 점차로 縮少되는 반면에 遠隔沮止策으로 변모되어 가고 있는데 대해서 美国이 얼마나 만족하게 생각하고 있던지간에 美国이 이 遠隔沮止策의 効率性을 確固히 인식시켜야 할 당사자는 바로 北韓인 것이다.

北韓에 대해 우리들이 알고있는 知識이란 고작해야 限定된것이다. 우리는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많이 알지못하고 있다. 그들은 極히 挑発的인 行動을 취해왔기 때문에 沮止策에 관한 通常的인 概念에 약간의 의혹을 갖게해주고 있다. 우리는 変化되고 있는 美国의 態度에 대해 北韓이 어떤 反応을 보일지 確實히 모르고 있다. 美軍 1 個師団 철수는 平壌(및 北京)에 의해 분명히 認知되었다. 그들은 전혀 예상밖의 일은 아니었지만 이 美軍撤収를 속임수라고 규정하고, 美軍撤収는 韓国軍隊로 代替시킴으로써 美国의 犧牲을 줄이려는 술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北韓의 対南侵透와 一般的인 好戦性이 줄어든 주요원인은 大体的으로 그러한 政策의 失敗에 기인하고 있지만, 北韓이 蘇聯과 中共이라는 理念的秋波꾼들을 제쳐놓고 자신의 侵略性이 오히려 美軍의 韓国駐屯을 長期化시키는 作用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포착했기 때문인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転換期間의 不安定을 考察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金日成의 個性과 野心이 어떤것인가 하는 問題이다. 金日成의 身上이나 그의 權力遂行方法에 관해서 우리가 거의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은 좋은일은 못된다. 中·蘇紛争은 그의 独自路線을 保障해주는 동시에 그에게 상당한 行動의 自由를 가져다 주었다.

그의 한결같은 野望은 南北韓을 共産主義統治아래 統一하는것이다.

그는 이러한 目的達成을 위해서 한차례 戦争을 일으켰으며, 지난 5年 동안에는 그와 같은 目的의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라면 가장 挑発的인 行動도 감행할 용의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朝鮮労動党内에서의 그의 특출하고 오랜 役割(다른 共産党内에서는 毛澤東만이 그에게 필적할 수 있다)과, 두번에 걸쳤던 成功的인 対美抗拒는 世界的革命家라는 자신의 虛勢를 높혀주는 동시에 주목의 대상이 되고자 하는 그의 慾望을 刺戟시켜주었다.

金日成의 肖像이 들어있는 金배지, 그리고 그의 傳記를 뉴요크·타임스紙와 印度新聞들에 全段広告로 게재하는 등의 金日成崇拝는 환상적인 정도에까지 도달했다. 이와같은 모든것은 金日成이 신중하지 않다는 것을 뜻하는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적어도 그의 현실적인 權力掌握에 관해서 문제점들을 제기시켜주고 있다.

우리는 金日成의 将来計劃에 관해서 거의 아는 것이 별로 없다.

그는 18年동안이나 戦争을 하지않고 지내왔으나 나이는 점점 늙어가고 있다. 현재 59세(韓半島주변 여러나라의 指導者들에 비해서 젊은 편이다)인 金日成은 統一이 그의 生前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台湾반환문제는 忍耐를

가지면 해결할 수 있다고 余裕를 가정할 수 있는 中共에 비해서 金日成은 時間이 그의 편이 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中共보다는 훨씬 더 심각한 회의를 품고 있을 可能性이 있다.

그는 韓国이 갖고 있는 人力면의 利点과 성장일로에 있는 經済및 軍事力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가령 韓国의 자체적인 힘정도면 安心해도 좋을 것이라고 金日成이 생각한다고 할때에 이와 같은 생각이 共産主義思想으로도 통할 수 있다는 사실상의 不可能한 경우를 가정한다고 하드래도 金日成에게는 日本의 軍事的再登場 可能性이라는 問題가 남아 있는 것이다. 金日成은 또 그의 政權의 窮極的인 軍事的安全에 대해서 조차도 우려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韓国과 東部아시아에 대한 美国의 態度変化는 金日成의 将来計劃에 重大한 影響을 미칠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敵対行爲가 발생할 경우 金日成이 中共과 나아가서는 蘇聯으로 부터도 계속적인 支援을 받을 수 있을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를 경우도 쉽게 상상할 수가 있을 것이다.

前述한것 가운데 어느것도 韓半島에 있어서의 戰争의 불가피성을 力說하려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런것은 하나도 없으며, 사실 韓半島의 事態가운데에는 敵対行動을 不可能하게 만들 要素도 다분히 包含되어 있다. 그러나 美国의 防衛態度의 転換이 完全히 遂行되고 終結될때 까지 不安은 계속 增加될 것이다.

2. 永久的인 日·中共間 敵対関係

만일에 현재와 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韓国은 中共과 日本간의 永久的인 敵対関係의 源泉이 될것이다. 모든 징조로 보아 韓国에 대한 日本의 役割과 介入은 經済分野뿐만 아니라 政治的分野에서도 발전할 것임을 나타내고 있다. 日本은 韓国에 대해 精通하며 또 韓国의 政治問題에대해 積極的인 役割을 할 수 있는 좋은 位置에 있다. 韓国에서 실시되는 選擧運動에 있어서 日本資本이 이미 상당한 部分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公開된 秘密이다.

한편 상당수의 韓国人들이 日本人들을 싫어하고 그들을 마음속 깊이 不信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또 상당수의 韓国젊은이들의 경우 日本人들을 몰아내기 위해서라면 必要할 경우 北韓과도 協商할 생각마저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와같은 감정에도 불구하고 美国의 韓国介入에 대한 계속적인 縮少와, 계속되고 있는 南北韓간의 증오감과 交戦状態등은 韓国의 対日依存度를 더욱 深化시키고 있다.

中共과 北韓은 韓国에 대한 日本의 새로운 侵略에 대처할 方法을 아직도 摸索해내지 못했다. 지금까지 그들은 韓国에 投資하는 日本商社들에 대해서 中共市場進出을 거부할 것이라는 위협수단에 주로 依存해오고 있다. 그들은 특히 日本軍国主義의 부활과 그것이 美帝国主義의 代理役割(「突擊隊」)을 할 것이라는 強力한 宣傳攻勢를 펴고 있는데, 이것은 国際的関心과 日本国内의 関心을 불러일으킴으로써 日本의 対韓政策에 대한 日本国民들의 疑懼心을

최소한 강화시켜 주는 手段으로 利用되고 있다.[10] 그들은 美·日 同盟関係를 파괴하려 企図하고 있는데, 駐韓美軍撤収는 그와 같은 目的달성을 위한 한 措置로서 이것은 어떤면에 있어서는 左派的中立主義를 促進시키게 될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것 같다. (그러나 그들은 정반대의 사실에 직면할것이다) 이러한 생각에 따라서, 中共은 日本의 外交政策에 影響을 미칠수 있는 가장 有利한 方法은 日本의 国内政治를 直接目標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中共이나 北韓이 그와 같은 目的을 위해서 直接 많은 行動을 할 수는 없지만, 事態가 進展되어가는대로 내버려두고 점차 여기에 適応해나가는 方法을 利用하는 것은 極히 可能한 일이다.

北韓은 日本이 韓国에서 너무 確固한 位置를 구축하기전에 어떤 形態로던지 行動을 취하지 않을 수 없는 立場에 처하게 될것으로 생각되기도 한다. 여하간에 緊張은 고조되고 끊임없는 비난선전이 나타날 것이다.

核心的인 問題는 韓国에 대한 日本의 軍事介入問題가 될것으로 보인다. 勿論 그러한 事態発展은 韓日두나라의 国内外的인 여러 要因들에 의해 左右될 것이다.

韓国을 지원하기 위해서 北京과의 友好関係를 犠牲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日本人들이 反対할것이 確實하다. 그러나 조만간에 韓国에 대한 日本의 經済的投資는 莫大한 수준에 도달함으로써 日本이 이 投資를 保護하기 위해서 措置를 취해야 한다는 요구가 日本

內에서 強力하고도 影響力있는 수준에 도달하게 될것이다.

北韓의 계속적인 위협과 韓国으로 부터의 漸進的인 美軍撤収는 그러한 要求를 더욱 強化시켜주게 될것이다. 이와 같은 환경하에서 日本이 対韓関係의 保證를 위해 그의 軍事力을 실질적으로 強化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것인지는 의심스러운 일이다.

今世紀에 東部아시아를 支配해온 것은 日·中共간의 敵対関係이다. 일부 美国人들은 永久的인 日·中共敵対関係가 必要한 일일뿐만 아니라 또한 불가피한 사실이며 그것은 아시아의 勢力均衡을 위해서 有益한 자극요인이 될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美国이 그와같은 目標에 政策的方向을 設定할것을 원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美国을 위해서 有益한 役割의 代案이 될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美国의 政策이 어떻게 되던지간에 그와 같은 事態에 도달하기가 쉬울지도 모르며, 그럴 경우 美国은 根本的으로 局外者의 立場이 될것이다. 그러나 日·中共간의 그와 같은 敵対関係에는 明白히 代價가 따를 것이다.

日本이 韓国問題와 또 어떠면 台湾問題와도 中共과 紛争을 벌일 경우 그때의 日本은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日本과는 매우 次元이 다른 日本이 될것이다.

(註 10 : 周恩来는 最近 「제임스·레스턴」과의 会見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위험(日本軍国主義)에 反対하려면 그 위험이 発芽期에 있을 때 반대해야 한다. 그래야만 一般人들의 関心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다. 그렇지않고 그것이 이미 힘으로 발전했을 때까지 기다릴 경우 그 反対에는 너무나 큰 努力이 必要하게 될 것이다)

3. 外交的 流動性

進展状態에 있는 韓国의 国際的환경과 그에 따라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思考方式의 変化들은 韓国이 지난 1940年代 下半期에 가졌었던것과 같은 流動性을 다시 韓国問題에 제기시켜주고 있으며, 어떠면 그것은 列強들의 外交的競争을 위한 門戸開放의 再燃이 될지도 모른다. 이와같은 모든 것은 주로 超強大国들의 상대적인 地位가 減少되고 있는데 기인하고 있다.

韓国은 駐韓美軍 2個師団가운데 1個師団이 撤収하는 것을 直接 눈으로 보았다. 韓国은 나머지 美軍1個師団의 撤収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努力을 다할 것이지만, 그 撤収가 時間的인 問題이고 이 時間이 매우 重要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이와 동시에 韓国은 또한 美·中共간의 진정한 和解의 展望을 直接 목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美国内의 気流를 감안할 때에 韓国의 利害関係가 東部아시아에 있어서의 美国의 보다 一般的인 利害関係에 예속되지나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朴正熙大統領은 韓国問題가 強大国들에 의해 決定되지 않을까 하는 점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特別한 関心을 表明했다.[11] 韓国은 中共의 유엔加入이라는 問題에 直面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韓国은 日本을 두려워하는 동시에 싫어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日本을 멀리 할 모험을 감행할 수도 없는 입장이다.

韓国은 또 닉슨美大統領의 中共訪問에 대해서 日本이 취할 지도모를 反応에 관해 関心을 모으고 있다. 韓国은 南北韓問題에 있어서 약간의 融通性을 가져야 할것이라는 必要性을 인정하고 있다.

韓国은 그의 힘을 増強하고 安全을 강화하기 위해서 새로운 同盟国과 方法을 積極的으로 摸索하게 될것이다.

北韓도 또한 그 同盟国들의 持續性에 관해서 우려하고 있음이 分明하다. 北韓은 핑퐁外交에 관해서는 일체의 言及도 하지 않았으며 닉슨大統領의 中共訪問을 受諾하기 까지는 약 한달이나 걸렸다. 中共의 再次的인 保障에도 불구하고 北韓은 美・中共간의 関係改善努力에 대해서 비록 至大한 関心은 아닐지라도 적어도 어느정도의 関心을 가지고 注視하고 있는것만은 確實하다.

(註 11 : 朴正熙大統領의 1971年 8・15慶祝辞中에서 駐英韓国大使舘발행 Korean News 1971年8月15日字参照)

戦略武器制限会談(SALT)에서 일어나는 事態나 相互 均衡있는 兵力減縮(MBFR)및 欧洲安保会談(ESC) 또는 「베를린」문제에 관한 事態도 北韓에 대해 蘇聯에 관한 慰撫를 그리 주지 못하고 있다.

北韓은 南韓에서 日本물결을 막을 手段을 찾으려 할 것이나 아직 까지는 効果的인 方案을 発見하지 못했다. 北韓은 南韓에서 美軍의 役割이 減少되는 것을 이용하기를 바라고 있으며 「유엔」討議에도 参席하려 할 것이다. 다른 나라들의 認識도 또한 流動

的이다. 日本은 中共과 衝突하는 方向으로 끌려 들어가지 않고 韓国에서 그들의 理解関係를 保全하는데 관심을 갖고 있음이 틀림 없다. 동시에 東京은 駐韓美軍의 追加撤収에 当面하지 않을수 없다. 美·中共関係의 最近 事態는 많은 日本人들에게 美国 및 그 核雨傘의 信頼性에 관해 深刻한 疑懼心을 일으켰는지도 모른다.

中共은 日本으로 하여금 적어도 台湾 그리고 더 바란다면 韓国에서 日本의 더 이상의 介入을 막을 方案을 摸索하고 있음이 틀림없으며 그 다음으로는 이 地域으로 부터의 美軍撤収를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마찬가지로 韓国문제는 美国에 대해 더욱 複雑化하고 있다. 美·中共関係 改善에 관한 呼訴는 日本과 韓国에서 일어 나는 事態에 따라서 評價되어야 하며 日·中共関係는 「아시아」에서의 効果的인 美国 立場을 発展시키는데 있어서 결정적 要因이 되고 있다.

새로운 事態와 認識의 変化가 의미하는 것은 目標의 変化, 새로운 態度, 아마도 새로운 路線, 그리고 새로운 路線이 아니더라도 낡은 路線에 대한 새롭거나 다른 次元 및 従前의 敵에 대한 새로운 形態의 関係이다.

10年前에 凍結된 状態는 오늘날의 状況아래서도 凍結될 必要는 없다. 建設的인 変化가 일어 날수 있느냐는 것은 外交活動의 課題이며 두고 보아야할 일이나 外交의 領域이 증가해 왔다는 것은 疑心할 바 없다.

南韓 対 北韓 相互間의 政策

選択의 対象이 되는 政策들을 考慮하기에 앞서 韓国問題의 한가지 決定的 局面 즉 南北韓이 서로 相対方에 대하여 取하고 있는 政策과 이들 및 이들의 盟邦이 이같은 競争에 関하여 가지고 있는 見解를 考察하여야 한다. 이러한 領域은 아마 韓国問題에 있어서 가장 큰 外交的 活動의 余地를 주고 있는 것 같다.

〈韓国의 対北傀 政策〉 李承晩大統領下에서 韓国의 対北傀 接近方式은 간단한 것으로서 韓国問題의 唯一한 解決方法은 北進統一이라는 것이었다. 北傀는 「유엔」軍과 戰争을 벌렸기 때문에 「유엔」의 韓国問題에 관한 討議에 조차 代表를 参席시킬수 없었고 国際的으로 容認되어서도 아니 되었다. 南韓人들의 対北韓人 接触은 어떠한 것이건 危険한 것으로서 禁止되어야 했다.[12]

1960年의 4.19 學生義擧로 李承晩大統領政権이 무너지자 南韓에서는 北韓과의 接触, 関係改善 및 積極的인 統一에 초점을 둔 論議가 물 끓듯이 일어 났다. 이러한 運動에 앞장선 韓国學生들은 韓国政府에 代해 "韓国의 現實에 바탕을 둔 積極的인 外交"를 펼 것을 促求했다. 學生들은 自由로운 書信往来, 文化交流, 通商開始, 韓国問題에 관한 国際会議召集의 摸索 및 駐韓美軍의 撤収와 韓半島 全域의 中立化 까지도 요구했다.

1961年의 "領官級 将校들에 의한 下剋上 事件"은 대체로 少壮将校들이 張勉政権의 無能과 이로 인해 発生한 無政府 状態 및 有害한 思考를 意識한데서 일어난 것이었다. 새 指導者로 登場한 朴正煕大統領은 새로운 政策의 提案者들과 특히 學生들에 대해 強

硬策을 썼다. 北傀와의 会談을 주장하는 個人과 団体들이 抑圧되었으며 対北傀関係에 관한 論議조차도 實際로 犯罪가 되었다.
朴正熙大統領은 힘에 의한 統一을 排除했다는 중요한 例外를 除外하고는 本質的으로 北傀에 대해 李承晩大統領下에서 取해 졌던 것과 똑같은 立場으로 되돌아간 것이었다. 그리고 朴大統領은 이러한 対北傀 接近方式에 관해 真摯하고 至当하기 까지한 理論的 根據를 提示했다. 韓国은 政治的安定을 이룩하고 經済的으로 北傀를 따라 갈때 까지 北傀와 協商을 할 態勢가 不充分할 것이다.
오래지 않아 아마도 1970年代 후반에 가서 統一을 摸索할 与件이 成熟할 것이다. 要約해서 朴大統領이 北傀에 대하여 取하고 있는 現 政策의 要綱은 다음과 같다.

- 南北交易, 文化交流 또는 書信往来에 이르기까지 北傀와의 接触은 어떤 것이건 禁止된다. 南北離散家族찾기에 관한 南北赤十字間의 最近会談은 오랫동안 取해져온 이러한 政策의 一角이 처음으로 무너진 것이다.
- 北傀가 大韓民国의 合法性을 受諾하고 武力의 使用을 拋棄할때까지 北傀와 会談을 가질수 없다.
- 受諾할 수 있는 唯一한 統韓方式은 人口比例에 의한 「유엔」監視下의 南北韓自由総選擧이다. 이 方式은 人口에 있어서 크게 優勢한 南韓에 대해 韓半島의 支配는 保障해 줄것이다.
- 韓国문제에 관한 現存 「유엔」 機構의 保存, 韓国은 「유엔」의 産物이며, 그의 国際的 地位와 威信이 韓国에 관한 「유엔」

의 모든 現存 機構를 그대로 維持하는 것과 密接한 關聯을 갖는 것으로 보아 왔고 또 그렇게 본다고 披瀝해 왔다.

이러한 「유엔」機構에는 美軍將星이 駐韓「유엔」軍司令官으로서 韓国軍을 指揮하도록 許容하고 있는 「유엔」軍司令部와 「유엔」韓国統一復興委員団(UNCURK)이 包含되어 있다.

大韓民国은 「유엔」이 그들의 地位를 韓半島에서의 唯一한 合法政府로 承認한데 힘입어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은 不法的이며 最少限度 그들이 韓国問題에 관한 「유엔」의 管轄權을 受諾할때 까지 이들이 韓国問題에 관한 「유엔」의 年例的인 討議에 参席하는 것을 許容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大韓民国이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을 承認한 어떠한 国家와도 關係를 맺는 것을 禁止하는 「할슈타인」原則, 그러나 이 原則도 浸蝕되기 시작했다.

朴大統領은 지난 1年동안 対北傀 關係 問題에 관해 어느 정도의 融通性을 보여 왔다. 그는 1970年 8月 15日 닥아 오는 大統領選擧를 念頭에 두고 "놀라운" 統韓案을 내 놓았다.

때는 달라 졌으며 統一問題는 먼 將來에나 바라 볼뿐 더 이상 그 可能性이 없어 졌다. 그러나 먼저 北傀는 対南浸透와 기타 挑発行爲를 中止하는 동시에 公開的으로 大韓民国의 顚覆企図를 拋棄하고 韓国問題에 관한 「유엔」의 權能을 受諾함으로써 眞摯한 緊張緩和措置를 취해야 한다.[13]

이러한 条件들은 그러나 北傀에 의해 拒否 당할것이 분명 했으

며 또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

朴大統領은 1971年 8月 이러한 提案을 再次 내 놓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南北韓離散家族찾기문제에 관해 赤十字会談을 提案한 大韓民国의 最近措置였다. 이러한 奇襲的인 提案은 「닉슨」美国大統領의 中共訪問発表로 부터 附随的으로 생겨난 落塵인것 같으며 새로운 国際情勢에 어느 정도 呼応하라는 国内的 圧力에 朴大統領이 機敏하게 適応함으로써 나온 것이다. 그것은 중요하기는 하나 조그만 措置에 불과하며 基本的인 政策이 変更된 것은 아니다.

(註 12: 韓国의 統一政策에 관한 韓国人들의 論議에 관하여는 高麗大學校 「아시아」問題研究所 発行 정인택 著, 「韓国政府의 統一政策에 関한 評価, 1948 - 1970」参照

(註 13: 大韓民国文化公報部発行 「統一: 70年代의 目標」, 1970)

<大韓民国의 現 接近方式을 결정하는 諸要因>

南北韓間의 均衡을 平準化해온 変化에도 불구하고 大韓民国의 対北傀 政策은 대체로 静態的인 状態를 維持해 왔다.

그 몇가지 要因을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 <国内的不安의 惹起에 대한 憂慮> 北傀로 부터의 威脅感은 韓国의 政治生活을 拘束하는 諸 要素의 하나가 되고 있다. 그것은 権威主義와 現在 加해지고 있는 政治的 抑圧의 밑바탕을 이루고 있다. 쓰라린 党派싸움이 벌어졌고 政治的 安定 期間이 짧았던 韓国의 歴史를 감안할때 많은 韓国人들 특히 朴大統領의

消極的인 權力源이 되고 있는 軍의 高位 幹部들은 正常化를 向한 어떠한 進展과 이에 뒤따라 올 必然的인 協商이 韓国에서 既存의 政治的 見解差異를 크게 悪化시켜 결국에는 政治的 混乱을 惹起시킬 것으로 우려 하고 있다.

所得의 不平等한 分配, 農村에 대한 軽視 및 急速한 都市化와 大規模的인 腐敗에서 오는 圧力으로 말미암아 政治的 不安定의 素地는 充分히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가 일어 나는 것은 이해 할만한 것이다. (「現状維持」政策은 例컨대 學生騷擾와 같은 国内的 不安을 惹起시킬 수 있다)

- <北傀에 대한 劣等感> 大韓民国은 北傀에 의해 유린되었었으며 거의 完全히 破壊되었었다. 많은 사람들이 1940年代 후반기에 北韓으로 부터 越南했으며 많은 南韓사람들은 1950年에 暫間 동안 經驗한 北傀治下가 苛酷했다는 것을 記憶하고 있다. 지난 20年間 거의 내내 北韓의 一絲不乱한 性格과 經済的 動態는 韓国人들에게 印象的인 것이었다. 劣等感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 韓国人들은 또한 朝鮮労働党의 策略能力과 北韓에서의 絶対的인 支配가 南北韓間의 어떠한 現實的인 協商에서 南韓을 脆弱하게 만들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 <地理> 地理的 要因은 韓国의 戰略的 思考와 劣等感造成에 있어서 중요한 役割을 하고 있다. 好戰的이고 잘 武装된 北傀(DPRK)와 대치하는 것은 어지간히 못마땅한 일이나 大韓民国은 2大敵性国家에 둘러 싸여 있기 때문에 이들 国家가 軍

事的으로는 勿論 外交的으로 北傀와 提携하는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韓国이 強大国의 支援에 달라 붙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日本은 할수만 있다면 韓国에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韓国으로 부터 수백 「마일」 떨어져 있는데 다가 予見할 수 있는 将来에는 制限된 兵力만을 保有하게 될것이다. 그리고 더군다나 大韓民国은 日本에 대한 依存을 꺼리고 있다.

- <그러므로 大韓民国은 軍事的으로는 勿論 心理的으로 美国에 크게 依存> 하고 있다. 美国은 피로써 뿐만 아니라 經済的, 精神的으로 支援한다는 의미에서 韓国의 보루가 되어 왔다. 大韓民国으로서 美国이 介在한다는 確證이 없는 世界를 생각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政策의 基本原則은 美国의 軍事的인 韓国介在를 可能限한 長期間 持續시키는 것이다. 美国의 支援을 危殆롭게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 回避해야 한다.

- 北傀에 대한 韓国의 劣勢를 끊임없이 주장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美国의 援助增加를 確保하고 나아가서 美国의 対韓公約을 거듭 다짐하게 하는 「協商武器」가 되고 있다. 大韓民国은 이같은 努力에서 크게 成功을 거두어 왔는데, 그들은 보다 많은 援助를 獲得하고 美国의 軍事的 介在를 계속시켰을 뿐 아니라, 長期的인 協商을 벌이는 일방 약간의 変化 기미에도 敏感한 反応을 보임으로써 美国의 対韓政策 変更을 沮止하고 있다.

—<大韓民国이 現 「유엔」組織에 執着> 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感情的인 面이 있으나 그것은 또한 上記한 要因과도 関聯이 있다. 이문제에 관한 姿勢를 바꾸는 것은 朴大統領에게 深刻한 国内的 政治 문제를 불러 일으킬 수가 있다. 朴大統領은 大韓民国 자신의 国際的 立場에 関心을 갖고 있으면서도 옳건 그르건 対「유엔」政策의 変更이 어떤 方式으로든 美国의 対韓政策에 悪影響을 주지 않을까를 아마 더욱 우려하고 있을 것이다.

<北傀의 統一政策과 策略> 大韓民国에 대한 北傀의 政策은 정도 차이는 있을지언정 相異한 그리고 때로는 相衝되는 要素를 동시에 包含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政策 推進 方式은 지난 数年동안 内部的 要因은 勿論 外部的 要因에 따라 크게 차이를 보여왔다. 北傀의 政策은 暴力과 挑発行為로 特徵지워져 왔다.

北傀는 大韓民国을 美国으로 부터 遊離시켜 韓国政府를 顚覆시키는데 政策의 基本目標를 두어 왔다.

韓国에 대한 積極外交는 北傀政策의 主要 特徵을 이루어 왔으며 世界의 일부 国家들에게 北傀政策이 融通性이 있고 合理的이라는 인상을 주어 왔다. 北傀는 基本的으로 韓国문제는 韓国人들 끼리 解決해야 하는 国内문제이며 모든 外国軍隊<例컨데 美軍>은 撤収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北傀는 南韓에 대해 協商을 開始하라고 끊임 없이 圧力을 加해 왔으며 累次에 걸쳐 相互武力不使用

宣言，南北韓指導者会談， 政治協議会議，10만명으로의 相互 軍兵力 減縮，選擧法 起草 및 南北韓 総選擧 實施 準備를 위한 全国委員会，中立国의 選擧監視， 韓国문제에 관한 「제네바」式 会談，統一을 向한 過渡措置로서의 南北韓 聯邦制 등 協商開始를 위한 수많은 方案들을 제안해 왔다.[14]

北傀는 또한 이보다는 消極的이지만 南北韓間의 接触을 增進시킬 갖가지 方案들을 주장해왔다. 北傀는 그들이 내세우는 協商条件에 관해 어느 정도 모호하고 前后 矛盾되는 주장을 해 왔다. 統韓問題에 관한 最近의 主要한 見解 表明인 北傀 外相 許談의 가장 毒舌的인 1971年 4月 12日字 演説에서 北傀(DPRK)는 協商의 先行条件으로서 朴大統領政府의 逐出을 주장했다. 그러나 金日成은 「닉슨」 大統領의 中共訪問計劃을 歡迎한 同演説에서 그는 大韓民国이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의 統一案을 受諾하든 않든 朴大統領이 領導하는 民主共和党의 幹部들을 包含하여 그 누구와도 会談을 가질 用意가 있다고 宣言했다.[16] 北傀는 이러한 基本的인 態度表明과 함께 韓国統一問題를 考慮함에 있어서 「유엔」은 아무 関与할바가 없으며 「유엔」에 의한 大韓民国의 樹立은 不法的이고 「유엔」軍은 韓国으로부터 撤收해야 하며 韓国統一復興委員団(UNCURK)과 기타 「유엔」機構는 解体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北傀는 「유엔」과의 妥協用意를 비치면서 갖가지 協商方案을 내 놓았다. 北傀는 年例的인 「유엔」의 韓国問題討議에 参席하겠다고 同意했으나 이와 같은 参

席이 <유엔>의 韓国問題에 관한 管轄權을 인정하는것이 아니며 그들은 「유엔」의 決定에 拘束되지 않을 것이라는 그들이 내세우는 条件 하에서만 参席하겠다고 말했다. 北傀는 「유엔」의 韓国問題 討議에 参席함에 있어서 韓国問題를 다룰수 있는 「유엔」의 権能을 受諾할것만을 要求한 이른바 「스티븐슨」案의 受諾을 拒否해왔다.

北傀는 外交活動에 専念하면서 南韓国民을 政府와 美国으로 부터 遊離시키고 全般的으로 南韓에서 反抗과 無秩序를 助長하기 위해 狂奔해 왔다. 北傀는 이러한 目的을 達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手段을 취해왔다.

- 韓国政府를 暴力으로 顚覆하기 위한 中核으로서 南韓에 共産主義細胞를 扶植, 마침내 革命政党을 樹立.
- 不安과 無秩序를 助長하고 大韓民国의 能力과 士気를 저상시키며 經済를 교란하고 韓美両国間에 緊張을 造成시키기 위해 間諜 및 破壊分子의 浸透
- 腐敗하고 停滯的이며 弾圧的인 南韓에 比較한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의 動態와 優越性을 알리고 大韓民国의 指導層이 美国의 주구라거나 日本에 대해 売国行為를 했다고 주장함으로써 그들을 韓国民族主義의 守護者로 보이게 하며, 金日成을 確固한 指導者이며 最高의 愛国者로서 浮刻시키기 위한 宣傳活動의 계속 이러한 宣傳努力은 어느 정도 成功을 거두는 것으로 보이는 때도 있었으나, 대체로 北傀에 대한 南韓人들의 恐怖心과 嫌悪를 解消시키지 못했다.

休戰后 10年동안 北傀의 統一政策은 平和的 手段, 外交活動 및 宣傳活動에 力点을 두어 왔는데 그것은 그들이 戰爭으로 인한 破壞로 부터 再建을 할 時間이 必要 했기 때문이다. 北傀는 또한 南韓의 不安定과 明白한 停滯狀態 및 李承晚大統領에 対한 漸高해가는 民心離反을 이용하려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北傀는 이 기간중 대부분 韓国動乱中에 越北한 南韓人들인 수많은 間諜들에게 相当한 資金을 주어 反李承晚 反美感情을 煽動하기 위해 南派했다.

北傀의 外交攻勢가 두드러지게 벌어진것은 李承晚大統領이 下野하고 南韓에 南北韓関係의 改善을 둘러싼 輿論이 물끓듯이 일어난 뒤였다. 그러나 이 期間中에도 主로 平和統一路線을 선전하기 위해 間諜들이 南派되었다.

北傀의 外交 및 宣傳努力은 韓国의 새로운 軍事政府 앞에서 거의 아무런 結實도 가져 오지 못했으며 大韓民国의 越南派兵에서 일부 刺戟을 받아 高度로 冒險的이고 好戰的인 政策을 追求하기 위해 1966年 本質的으로 拋棄되었다.

金日成은 友好的인 한 共產国家를 支援해야 하는 입장이기도 했지만, 大韓民国이 태연하게 韓国으로 부터 兵力을 빼돌리는 것을 보고 自尊心을 傷했을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와 동시에 金日成은 아마 韓国에서는 成功을 거둘수 있는 길을 胡志明의 越南戰略에서 찾은 듯하다. 北傀는 그들의 軍隊를 強化하고 国防費를 增額하는 한편 새로운 好戰性을 띄었다. 그후 3年동안 北傀는 非武裝地帶

에서 韓美両軍의 防衛態勢를 探索했으며 南韓에서 「게릴라」戦을 展開하고 經済를 교란하기 위해 間諜 및 破壞分子들을 南派했다.

이러한 政策은 戦争이 벌어 졌다면 분명히 그 原因이 될 수도 있었을 1968年의 武装共匪 31名에 의한 朴正熙大統領暗殺企図事件과 역시 1968年에 일어난 間諜 1백20명의 韓国東南海岸 侵透事件에서 그 絶頂을 이루었다. 이러한 侵略性은 1969年에 들어와 漸次 減少되었으며 1970年의 朝鮮労動党第5次大会에서 正式으로 抛棄된것 같다.

北傀는 그들 方式에 따른 統一方案이 實現性이 있는 것임을 発見할 수가 없었다. 그들의 主要 戦略문제는 그들이 "南韓 革命"에서 遂行할 수 있는 適切한 役割을 짜내는 것이었다. 毛澤東理念에 의하면 이러한 努力에 있어서의 主要 役割은 南韓国民들이 担当해야 하는 것이다. 金日成은 그 스스로 1960年에 李大統領이 失脚한 后의 革命努力이 失敗로 돌아간 原因은 南韓에 革命的前衛가 없는데로 돌렸다. 金日成은 이같은 見解를 理論上 是認하면서도, 南韓에 効果的인 革命政党을 組織하려는 努力이 分明히 成功을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實践過程에서 이를 따르기가 어려운 것임을 発見해 왔다. (現在 組織工作을 벌이고 있는 것은 소위 統一 革命党이다) 1966年 金日成은 더욱 強硬한 路線으로 転換, 革命闘争의 力点을 北韓에다 두었다. 統一을 成就하기 위한 첫번째의 課題는 "北韓에 不屈의 基地를 建設"하는 것이라 내세웠고 韓半島를 統一하기 위한 唯一한 方法은 "民族解放을 위한 大規模

的인 革命闘争을 展開"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17]

金日成이 最近 顚覆活動 策略을 보다 緩和시키는 方向으로 転換한 것은, 아마도 1960年과 같은 無秩序 状態가 再発할 경우를 이용하여 南韓에 政治的基地를 닦으려는 必要에서 나온 것이다.

1970年 11月의 朝鮮労動党第5次大会에서 金日成은 南韓에서 革命을 推進하는 主要 責任을 北韓이 아닌 南韓国民들에게 두었다.[18]

이러한 方向転換과 함께 보다 積極的인 外交政策으로의 逆転이 일어났다. 金은 郵便関係의 開設로 부터 南北韓이 各自의 政治的 社会的 体制를 維持하는 南北韓聯邦制에 이르기 까지 그가 앞서 주장했던 提案들을 다시 내 놓았다. 이미 지적한바와 같이 그는 最近 朴大統領의 共和党과 会談을 갖겠다고 제의했다. 그는 大韓民国의 合法性 주장을 弱化시키고 「유엔」에서 駐韓美軍撤収를 위한 圧力을 造成하기 위해 大韓民国과 国際社会에 受容되기 위한 競争을 積極 벌여왔다.

(註 14 : B, C, Koh 著 「北韓의 外交政策 (The Foreign Policy Of North Korea)」 112頁-184頁은 統韓문제에 관한 北韓의 갖가지 提案들을 有用하게 要約 論評하고 있다.

(註 15: BBC 放送, Summary of World Broadcasts, FE/3657, PP. C4-C9.

(註 16: BBC 放送, Summary of World Broadcasts, FE/3754/A3/H.

(註 17: B,C,Koh 前掲書 142頁-143頁

(註 18: Journal of Korean Affairs (Silver Spring, Md.:

Research Institute on Korean Affairs), 第1卷 第1號 1971年4月, 58頁.

<強大国들의 見解> 美国의 対韓政策은 侵略의 沮止와 能率的이고 經済的으로 自給自足하며 防衛能力을 갖춘 大韓民国을 建設하는데 초점을 두어 왔다. 美国은 韓半島의 緊急状態緩和를 바라고 있으며 理論上 韓国의 統一이 바람직한 것임을 인정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몇가지 理解할만한 理由로 말미암아 이러한 方向으로의 努力을 기울이지 않아 왔다.

- 近来에 이르러 거의 내내 보여온 大韓民国의 脆弱性
- 緊張緩和와 統一問題는 基本的으로 韓国人들 자신에 의해 解決되어야 하는 韓国問題라는 信念
- 朴大統領이 追求하는 統韓政策의 底辺을 攪乱하지 않고, 그의 国内的立場과 아마 韓国의 国内的 安定을 弱化시키지 않으며, 不確實하고 알 수 없는 未来의 結果를 얻으려다 韓美関係에 深刻한 危機를 惹起시키지 않으려는 意図
- 1966年 부터 70年까지의 期間中에 나타난 北傀의 好戦性
- 美・中共 関係의 凍結状態

그 결과 美国은 大韓民国의 政策을 全幅的으로 支持해 왔으며, 美国政府内의 政策樹立家들은 韓国問題에 관한 外交的 움직임을 考慮하는 것 조차도 꺼려왔다.

日本은 대체로 美国의 立場을 따랐다.

中共은 항상 統一을 志向하는 金日成의 外交的 努力에 입에 발린 好意만을 보여 왔다. 北傀의 提案은 반드시 北京人民日報로부터 즉각적인 支持를 받았으며 周恩来는 最近 이들 提案의 重要性을 強調했다.[19] 그러나 北傀 提案을 뒷받침하기 위해 中共이 真摯하게 기울인 唯一한 努力은 지난 1958年 北京이 北韓으로 부터 그들의 全 軍隊를 撤収시키고 美国에 대해 이와 같은 措置를 取하도록 挑戦한 것이다. 中共은 그들이 여하튼 하려던 것으로 부터 의외의 利得을 얻기를 希望했다.

北京은 北傀의 外交的 努力을 支援하기에 그리 좋은 立場에 있지 않아 왔으나, 그들 代表가 「유엔」에 参席하게 되면 北傀를 支援할 수 있는 能力이 훨씬 커질 것이다.

蘇聯은 反面에 北傀의 外交的 努力을 支援할 수 있는 手段과 能力이 이보다 더 컸으며, 北傀를 支援하는데 모든 努力을 기울여 왔다. 蘇聯은 韓半島事態를 緩和하고 韓半島를 独逸式의 政治的 情勢로 몰고 가기를 바라고 있는것 같다. 그들은 大韓民国과 北傀(DPRK)의 当局者들을 和解시키려는 努力을 찬양하고 있다. 集団防衛計劃에 관한 그들의 説明에서는 특히 理念 如何에 불구하고 모든 「아시아」国家를 이에 包含시키고 있다. 蘇聯은 北傀(DPRK)의 国際的 地位와 立場을 向上시키기 위해 매우 努力해 왔다.

그러나 그들은 平壤에서의 그들 立場이 中共에 의해 浸蝕 당하게 될 憂慮 때문에 北傀보다 너무 앞장 서 갈수는 없었다. 反面 蘇聯은 美国과 中共間의 紛争을 持続시키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다.

(註 19: 前掲 「제임스·레스턴」会見)

政策의 選択

美国政府内에서 選択의 対象이 되는 政策들은 부분적으로 支配的인 状況과 国内政治, 議会 및 與論의 支持, 官僚的 및 外交的 能力 盟邦들의 協調등과 같은 要因에 의해 形成된다. 그 政策들은 또한 부분적으로 政策目標에 의하여 決定되고 있으며, 따라서 美国이 韓国에서 当面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에 관하여 몇 마디 言及할 必要가 있다.

韓国을 孤立시켜서 取扱할 수가 없다.

분명히 韓国은 友好的인 国家가 非友好的인 国家로 変質되는 것을 볼때 매우 不幸하게 될 美国에 대해 그 자체로서 중요성을 띄고 있다. 그러나 本質的으로 중요하다는 생각은 大韓民国에는 거의 適用될 수가 없을것 같다.

오히려 韓国은 東部「아시아」의 全般的인 平和構造와 密接하게 関聯되어 있기 때문에 이 平和構造로 부터 孤立시켜서 考慮될 수가 없다. 韓国에서 일어나는 事態는 美·日関係와 美·中共関係의 発展 그리고 아마도 결국에 가서 「아시아」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日·中共関係의 発展에 決定的인 影響을 준다. 韓国에 관한 判断은 美国이 어떠한 形態의 日本을 바라고 있느냐 그리고 어떠한 形態의 雰囲気와 安保状況을 「아시아」에서 바라고있느냐에 関聯되어 있다. 対韓公約의 維持는 또한 全世界에서美国의 信頼性에 重大한問題를 提起하고있다.

韓国문제를 観察함에 있어서 중요한 要素는 過程 즉 어떠한 方法으로 変化가 일어 나느냐는 것이다. 北傀의 侵略을 独自的인

힘으로 擊退할 수 있는 強力한 大韓民国의 建設을 돕는 것은 중요한 政策目標이다. 그러나 만약 韓国軍이 실제로 試練을 당한다면 美国의 政策은 深刻한 挫折을 당할 것이다.

侵略沮止에 失敗한다면 즉각 韓国과 기타 地域에서 美国의 信頼性에 대한 중대하고도 매우 괴로운 문제가 惹起될 것이다. 그것은 日本의 政策에 深大한 変化를 일으킬 수도 있다. 그것은 美国의 対中共 関係 改善 努力을 長期間 挫折시킬 것이다.

이상과 같은 점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세가지 選択的인 政策路線이 提起된다. 그 첫째는 駐韓美軍의 継続的인 減縮과 遠隔沮止에의 依存 및 韓国軍에 의한 戦争防止를 그 내용으로 한다.

그 둘째는 韓国이 日本을 그의 安保守護者로서 期待하는 것이다. 그리고 筆者가 支持하는 그 세째는 南北韓間의 戦争을 防止하기 위한 軍事的 手段을 補充하기 위해 韓美両国이 主要한 外交的 努力을 벌이는 것이다.

I. <現 美国政策路線의 継続>

이것은 政策方向에 관한 説明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可能性이 있는 事態에 관한 説明이다. 本質的으로 이러한 方向의 政策은 美軍地上戦闘兵力을 全面 撤収시키거나 特別 旅団手準으로 減縮하는 것을 内容으로 할 것이다.

美空軍部隊들은 地上軍이 撤収한 뒤에도 数年동안 残留할른지 모른다. 韓国은 1971年에 취해진 것과 類似한 措置 즉 駐韓美軍의 減縮을 補償하기 위해 특히 空軍을 위한 追加軍事援助를 積極的으

로 摸索할 것이다. 駐韓美軍減縮과 함께, 韓国의 信頼를 維持시키고 美国의 派兵能力을 誇示하기 위해, 아마 「프리덤·볼트」作戦과 같은 規模의 美軍配置訓練이 實施될 것이며 무질한 修辞學的 表現으로 必要·발생時 美国이 韓国을 支援하겠다는 決意를 강조할 것이다. (이러한 配置訓練이 韓国을 安心시키는데 큰 作用을 할 것인지는 약간 의문시 되고 있으며 北傀는 이러한 訓練을 挑発的인 것으로 보고 있다고 闡明하고 있다) 이 모든 措置는 韓国이 經済的으로 계속 成長하고 있고 그의 内部的 団結이 悪化되고 있지 않다는 根據에 立脚하여 취해지는 것이다.

美国이 韓国에 対하여 취하는 外交的 措置는 韓国에 関聯된 다른 列強과의 関係에서 일어나는 事態에 依해 左右될것이 분명하다.

美国은 対中共関係의 改善 努力을 계속할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그의 基本的 姿勢는 大韓民国이 韓国問題에 関해 「이니셔티브」를 취하도록 기다리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이니셔티브」가 취해질른지는 알수 없으나 美国은 大韓民国에 対해 그의 接近方式을 変更하도록 圧力을 加하지 않을 것이다. 약간의 外交的인 움직임이 必然的으로 일어날 것인데, 中共(CPR)의 代表가 「유엔」에 参加함으로써 「유엔」에서의 韓国立場이 浸蝕될 可能性이 매우 크다.

略言하면 이것은 美国의 介在를 더욱 減縮하고 또 그 可能性이 매우 크게 보이고 있듯이 大韓民国의 国防力強化에 힘 입는 遠隔沮止에 依存하려는 態勢이다. 그것은 本質的으로 특히 美国의 不介

入, 日本의 援助 및 投資 계속 그리고 大韓民国의 急激한 成長과 같은 現在의 事態 趨移에서 이끌어 낼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戰争勃発時 美国이 介入할 可能性이 減少되는 가운데 보다 낮은 費用으로 安定을 계속하기를 摸索하는 것이다. 그것은 美国行政府로서 予算支出이 節減되고 美国의 介在가 減縮됨으로써 政治的으로 利益이 된다. 그것은 大韓民国과의 紛糾를 誘発할것이나 妥結되어야 할것은 援助条件과 일정한 한도내에서의 時期문제임을 両側이 예측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러한 態勢는 戰争防止의 作用을 할만한 것이다.

이러한 態勢는 沮止力을 어느정도 弱化시키고 日本에서 美国에 対한 疑懼心을 야기시키는등 마찬가지로 明白한 欠点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그 어느것도 不可測한것이다. 만약 戰争沮止에 失敗한다면 美国은 커다란 苦痛과 아마 完全한 受侮를 当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政策的 立場은 또한 韓半島에서의 武器競争은 激化시키고 南北韓間의 衝突事件과 報復을 증가시킬 것이다. 이러한 政策의 가장 두드러진 弱点은 日·中共間의 敵対関係를 制限하는데 아무런 寄与도 하지 못한다는데 있다.

2. <対日依存> 이 政策은 첫번째 政策의 主要 要素들을 包含하고 있으나 또한 우선은 아마 軍事援助計劃을 통해서 日本으로 하여금 韓国에서의 軍事的 役割을 担当케 하려는 活潑한 努力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실제에 있어 日本은 美国에 의한 沮

止役割의 대부분을 떠 맡을 準備를 갖출 것이다.

中共은 이러한 事態発展이 「닉슨 · 독트린」에 内包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20

이러한 接近方式은 美国에서 屢次 주장되어 왔으며, 특히 日本은 "無賃乗車"를 하고 있기 때문에 基本的으로 그들에게 帰属되는 東部「아시아」의 安保 "責任"을 그들로 하여금 引受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의해 주장되어 왔다.

美国政府 内外의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이 方式이 훌륭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現時点에서 이 方式은 단지 의미있는 政策으로 취급되기가 십상이다. 美軍이 追加 撤収하기 전과 그 직후의 중요한 不安期에 이 政策은 전연 實現可能性이 없는 것이다. 日本이나 韓国의 国内事情은 日本의 이러한 役割을 許容하지 않을 것이며 韓国에 대한 日本의 軍装備販売조차도 實現되기 까지에는 相当한 時間이 걸릴 것이다.

그러나 日本에 의한 軍事的 役割의 担当이 短期的으로 實現可能性이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長期的으로는 그可能性이 있는 것이며, 70年代 下半期에 實現될 것으로 展望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韓国이 主要 強国으로 부터 支援받을 必要性을 느끼고 있고 美国의 公約이 기울어져 가고 있으며 韓国에서 가지는 日本의 利害関係가 증가 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綜合해보면 그 모두가 이러한 方向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結果가 招来될 可能性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이 바람직한 것으로는 생각할 수 없다. 그것은 美国으로 하여금 韓国문제를 歷史的인 한 사건으로 치부해 버리고 韓国에서 손을 떼게 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나, 그렇게 하는데는 그의 다른 一面을 고려해야 한다. 美軍이 撤収한후 日本이 韓国에서 軍事的役割을 担当한다는 것은 日本의 軍備를 일정한 수준으로 묶어 두기 위한 妥協点이 될것 같지가 않다.

오히려 日本에 依한 이러한 責任의 부담은 日本内의 政治的 勢力판도에 変化를 가져와 日本의 安全을 為해서는 核武器를 包含하여 充分한 武器가 必要하다는 信念을 日本国民들에게 줄것이 틀림없다. 日·中共敵対関係는 계속될것이다. 日本과 中共間의 敵対関係가 太平洋에서의 安定과 平和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은 論難의 여지가 있다. 이것은 日本이 核国家가 되는것은 韓国에 依해 決定될것이라고 말하려는것이 아니라 韓国事態는 力學的 関係에서 하나의 重要한 要素가 될 수 있음을 말 하고자 하는 것이다.

(註 20: 例컨대 前揭 周恩来의 「레스턴」会見)

3. <外交와 沮止> 세번째 政策은 南北韓間의 緊張状態를 緩和하기 위한 一致된 外交的 努力을 그 内容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努力을 美国의 韓国介在를 延長시키기 위한 企図와 関聯시키고 있다. 이것은 筆者가 支持하는 行動方向으로서 詳細하게 다루어 질 것이다.

이러한 全般的인 政策方向이 基本的으로 仮定하고 있는 것은 予見할 수 있는 将来에 韓国情勢는 계속해서 너무 危殆롭고 不安定하여 南北韓과 그들 盟邦에 의한 変化하는 軍事的 沮止와 이러한 沮止에 대한 認識에만 맡겨 둘수는 없다는 것이다. 또한 必要한 것은 南北韓中 어느 一方 또는 他方에 의한 軍事行動을 抑止하거나 적어도 이를 困難하게 만들기 위하여 어느 정도 南北韓間의 関係改善을 志向하는 外交的 対話의 過程을 進行시키는 것이다. 外交的 努力 그 自体, 南北韓을 「유엔」에 参席시키고 韓国문제를 「유엔」에 提起함으로써 南北韓의 行動에 미치는 抑制的 効果, 韓国문제에 관한 「유엔」의 真摯한 討議로 부터 나타날 수 있는 平和 志向的 方案, 南北韓과 그盟邦들 간의関係에 관한 協商 및 強大国 自身들 간의 韓国문제에 관한 어떠한 協商의 効果등이 모든 것은 韓半島에서의 一方的인 軍事行動을 抑制하는 手段으로서 現存하는 軍事的 均衡을 強化하는데 기여 할 것이다.

筆者는 이러한 変化過程의 正確한 性格을 記述하거나 이러한 過程이 韓美両国側에서 어떻게 다루어 져야 되느냐를 시사할 수는 없다. 이것은 事態変化에 비추어 両国 政府만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이다. 여기서는 그보다도 変化가 어떻게 일어 날수 있느냐를 一般的인 観点에서 提示하는 한편 適切한 方向으로 変化를 이끌어 가기 위해 취해 질수 있는 몇가지 措置들을 列挙하고자 한다. 여기서 提示되고 있는 것은 원하는 変化를 刺戟하고 変化의 過程을 계속시키는 可能한 方案들의 目録이다.

政府들은 変化의 過程이 바람직 하거나 不可避한 것이라는 確信을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提示된 措置들이 그중에도 實行可能한 것이고 그들이 目標로 하는 바를 達成할 수 있는 真正한 機会를 가지고 있으며 그들이 事態를 悪化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確信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어떠한 提案도 政府만이 適用할 수 있는 詳細하고 多面的이며 政治的으로 現實性이 있는 分析을 必要로 하고 있다.

変化過程의 "有形的"인 目標는 (外交的 努力 그 自体에서 明白한 바와 같이) 現存하는 두개의 独逸 状態와 類似한 것이 될 것이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이 引用頻度가 높아가는 比較로 말미암아 明白한 어려움이 있다. 즉 南北韓間에 도사리고 있는 憎悪心의 強度와 盟邦들에 대한 이들의 보다 큰 自主性을 감안 할때 韓国情勢는 独逸의 情勢보다 더 冷厳하고 可燃的이다. 北韓은 南韓을 侵略했으며 南韓 国民들은 그들의 物理的 安全에 관해 훨씬 더 큰 憂慮를 가지고 있다. 北韓과는 달리 東独은 언제나 西独보다 훨씬 더 脆弱性을 띄어 왔으며 그들이 주장하는 条件에 따른 独逸 統一을 바랄수가 없었다. 大韓民国은 西独이 東独에 대해서 주고 있는 것과 같은 磁力을 갖고 있지 않다. 韓国이 西方側에 融合되어 있는 정도는 西独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사실이며 韓国의 危険은 더 큰 것이다. 그러나 独逸情勢는 다른 어떤 分断国情勢도 韓国문제에 대해 提示하지 못하는 아마 満足할만한 方向을 가리키고 있다.

敵意와 憎悪는 交易과 人的移動 및 現存하는 韓国分断状態의 国際的 容認으로써 減少될 것이다. 적당한 緊張緩和의 雰囲気는 分明히 크게 바람직 한 일이며, 韓国人들이 한나라만의 2個 国家라는 観念에 익숙해 지기는 어려울 것이지만 이러한 状態는 오늘날 尙存하고 있는 지독한 敵対関係보다는 훨씬 나은 것이다.

平和的인 韓国統一이 이루어 질것이라면 緊張緩和는 必要한 그 첫번째 段階인 것이다. 南北韓間의 関係改善은 根本的으로 그들 자신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政策은 「두개의 韓国이라는 変化하는 認識에 대한 努力」을 包含하고 있다. 南北韓의 盟邦들은 両側間의 어떠한 策略을 制限하고 時期와 實質問題에 影響을 줌에 있어서 중요한 役割을 할 것이다. 거꾸로 盟邦들의 支援은 韓国人들에 의한 어떠한 外交的努力을 成功으로 이끌기 위해 必須不可欠한 것이다. 그러나 関係正常化를 志向하는 어떠한 努力의 過程을 展開해야 하는 것은 바로 韓国人들 자신이다.

認識의 変化라는 문제는 부분적으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단지 権威主義的 個性을 가진 権力者의 態度를 変更하는 것만은 아니다. 오랫동안의 憎悪와 強力한 軍事的 対峙状態에서 벗어나는 것은 본래 危険한 것이며 그것은 矯角殺牛格이 될는지도 모른다. 南韓의 경우 認識을 変化시킨다는 것은 보다 融通性있는 外交의 必要性과 이러한 外交로 부터 얻어 지는 利益을 認識시키는 것인데 이것은 미만해 있는 軍国主義, 오랫동안 固定되어온 立場, 그리고 政治的 評判과 美軍撤収에 대한 憂慮등에 비추어 볼때 어려운 課題인 것

이다. 그것은 南韓의 힘에 대한 그리고 南韓이 北韓에 대해 相対的으로 有利한 立場에 있다는 確信을 全国民들에게 充分히 불어 넣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것은 또한 政治的으로 高度의 秩序維持를 요구하고 있다.

北韓에서의 認識変更의 課題는 어떤 具体的인 것을 記述하는 것은 말할것 없고 이를 分析하기가 훨씬 더 어렵다. 金日成은 南韓과의 競争에 있어서 現時代가 그의 편에 있지 않으며 따라서 北韓으로서는 現状維持를 秩序化(修辞學的으로 否認은 하더라도) 하여 緊張状態를 減少시키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確信을 가져야 한다.

韓国의 계속적인 成長, 끊임 없는 韓国의 軍事力 増強, 増加하고 있는 日本의 介在, 그리고 아마도 北傀同盟国들의 圧力은 모두 이러한 目的을 위해 作用을 할 것이다.

逆説的으로 金日成은 또한 統韓문제에 관한 그의 見解가 外交的過程에 의해서 진척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도록 내버려 두어야 하지만 이렇게 하는 데는 韓美両国側의 努力이 必要할것 같지는 않다. 또한 北韓에서 内部的 変化가 일어날 可能性이나 韓国政策의 修正이 北韓에 있는 모든 穏健勢力에 대해서 미치는 影響을 否認해서는 안된다. 이것은 매우 不確實하고 거의 알려지지 않는 領域이다. 그러나 金日成政策에 反対하는 勢力이 있다는 것은 粛清이 계속되고 있고 北韓에서 修正主義의 成長을 우려하는 宣傳이 증가하고 있는 事實에서 분명히 나타 나고 있다.

中共의 경우에서와 같이 金日成이 사라진 後 보다 그가 權座에

앉아 있을 동안에 다른 北韓指導者들 앞에 変化의 目録을 제시하는 것이 더 낫다.

政策이라는 点에서 보면 認識을 変化시키고 政策変更을 誘導하는 문제에는 중대한 不均衡이 있다. 美国의 影響力은 주로 南韓에 加해지고 있으며 直接的으로 行使될 수 있다. 大韓民国의 行動과 政策을 変更시키기 위해 이러한 影響力을 利用하는 것은 분명히 韓国에 대해서는 勿論 美国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政治的 문제를 惹起시킨다. 그러나 北韓에 대한 美国의 影響力은 기껏 해도 不確實하다. 韓国에 대한 美国의 軍事援助를 拡大시키거나

이를 拡大시키겠다고 危脅하는등의 方法으로 北韓에 圧力을 加하려는 努力은 費用이 많이 들거나 危險하거나 또는 이두가지 副作用을 다 일으킬 수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기 때문에 考慮의 対象이 되지 않고 있다. 北韓의 行動에 대한 美国의 影響力은 直接的으로 보다는 北韓 同盟国들과의 흥정을 통해서 行使될 수가 있다. 그리고 北韓의 政策에 대한 影響力은 주로 韓国과 日本으로 부터 나와야 한다. 後者는 中共과 北韓(그리고 韓国까지도)의 行動에 대한 참으로 強力한 影響力으로서 日本의 韓国介在를 制限하려는 이들 모두의 希望으로 부터 나오는 것이다. 이러한 要因들은 결국 어떻게 作用할 것인지 不可測한 것이며 予測할 수도 없는 것이다.

<몇가지 特別한 措置> 外交的 過程의 始初는 南韓이 現在 二辺的으로 北韓에 대해, 外交的으로 다른 共産国들에 대해 그리고

国際的으로 「유엔」에서 취하고 있는 "硬直한" 姿勢를 보다 脱皮케 하는 데서 出発해야 한다. 要求되고 있는 것은 韓国의 「対北政策」(Nordpolitik)이라 할 수 있는 것 즉 北韓의 現状을 인정하고 이들을 어떠한 그리고 모든 討議에 参加시키는 過程을 시작하려는 用意이다.

이것은 本質的으로 韓国이 지난 18年 동안 지켜온 立場으로부터 1백80度 転換하고 北韓이 이 期間中 歴次에 걸쳐 내 놓은 提案의 적어도 일부를 協商의 바탕으로서 受諾하는 것을 包含하고 있다. 韓国은 最近 南北離散家族찾기 운동을 위한 南北赤十字会談을 提案함으로써 작은 것이나 중요한 첫 걸음을 내 디뎠다.

그러나 이것은 基本的인 政策의 変更이라기 보다는 最近의 事態 특히 닥아 오는 「닉슨」美国大統領의 中共訪問에 대한 国内 政治的으로 必要한 適応인 것이다. 어떻든 韓国은 書信往来 및 文化交流와 같은 追加 措置는 제안함으로써 계속 水深을 잴수가 있다.

또는 韓国은 더욱 大胆하게 한걸음 더 나아가 政治指導者들간의 会談이나 統韓문제를 討議할 代表의 任命과 같은 措置들을 提案함으로써 一時的으로라도 国内外的으로 宣傳上의 利益을 거둘수가 있다.

韓国政府가 韓国의 国内輿論을 이끌어가는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에 많은 것이 左右될 것이다. 여기에는 하나의 최소한도의 条件 즉 南北韓이 어떠한 武力의 使用도 回避할것이라는 公開宣言이 要求될것이다.

적어도 一部側에서는 北韓과의 사이에서 韓国問題에 관한 意味있는 協商이 이루어 질수 있느냐는 疑問을 提起할 것이다. 大韓民国과의 協商에 관한 金日成의 생각은 大韓民国의 降伏과 破滅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信義와 妥協이 欠如되어 있다. 金日成은 "協商"이라는 것은 政治的 無秩序를 煽動하고, 大韓民国의 自信感을 破壞하며 韓美両国間의 紐帯를 断絶시키는 수단, 그리고 欺瞞당하기 쉬운 사람들로 하여금 韓国은 正常的인 政治的 方法으로 韓国人들 自身에 의해 統一될 수 있다고 믿게하는 欺瞞手段이라고 보고 있다. 이모든 것은 真實일 것 같기도 하다. 그러나 大韓民国은 그러한 可能性을 보지 못하거나 그들이 対峙하고 있는 北韓의 性格은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다. 적어도 韓国은 北韓과의 어떠한 協商에 있어서도 頑強하고 慎重한 態度를 취할 것으로 볼 수가 있다. 이러한 形態의 難点은 韓国의 「이니셔티브」에 의한 協商의 성공 可能性을 混乱시키고 있다.

그러나 南北韓協商에 「이니셔티브」를 취하는 첫번째 目的은 協商을 연다는데 있다. 비록 政策変更이 先行될 수 있다.
하더라도 韓国이 北韓을 어떠한 形態의 協商으로 끌어들이려는 用意를 갖는것은 그 당연한 결과로서 韓国이 「유엔」에서의 立場을 修正하는 것이 될것이다.
참으로 韓国이 「유엔」問題에 관해 融通性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들은 일찌감치 外交的으로 패배를 당하여 政策修正을 고려하는것보다 国内安定에 더욱 심한 打擊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

「유엔」会員国構成의 変化는 中共加入問題를 変形시켜 온것과 같이 「유엔」이 韓国問題를 보는 態度를 変更시키고 있다. 많은 「유엔」会員国들은 年例的이고 儀式的인 韓国問題 討議에 厭症을 느끼고 있을뿐만 아니라 한국문제에 관한 「유엔」의 立場은 韓半島情勢의 改善에 해로운 것은 아니라하더라도 非現實的인것이라고 느끼고있다.

이러한 생각은 中共代表가 「유엔」에 参席하여 北韓의 見解를 지지하는 活動을 열심히 벌임으로써 深化될것으로 보인다. 「유엔」에서의 韓国立場의 変化는 결국 「유엔」韓国統一復興委員団 (UNCURK)의 解体와 반드시는 아니더라도 십중팔구는 「유엔」軍司令部의 解体를 결과할 것이다. 그것은 韓国問題를 討議하고 이문제에 관해 건의안을 낼수 있는 「유엔」의 権能에 終止符를 찍을 必要는 없으나 北韓이 韓国問題에 관한 「유엔」의 討議에 参席하도록 許容되기에 앞서 먼저 한국문제에 관한 「유엔」의 権能을 受諾하라는 요구를 抛棄할것을 요구할것이다. 여기서 構想하는 것은 韓国問題에 관한 「유엔」의 年例的인 討議에 北韓을 参加시키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結局 南北韓을 모두 「유엔」에 加入시키게 되는 꾸준한 協商過程이다.

韓国問題에 관한 「유엔」의 姿勢를 変更시키고 北韓을 「유엔」테두리内에 快快하게 받아들임으로써 아마 韓国問題는 南北韓의 好戰性과 行動의 自由를 抑制할 수 있는 世界討論場에 끌어 들여질 수 있을 것이다. 現在로서는 그러하지않으나 「유엔」이 韓国問題를 앞으로 真摯하게 討議하게 된다면 監視団 및 仲裁使節団과 같이 潜在的으로 有用한 機構가 創設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어떻든 北韓이 基本的인 目標를 変更하지 않더라도 단순히 「유엔」에 參席하게 되어 「뉴요크」에서 不可避하게 벌어질 協商에 応하게 된다면 그것은 그들의 「이미지」에 대한 우려를 惹起시켜 시간이 감에 따라 北韓의 行動에 대해 緩和作用을 할른지도 모른다.

실질적으로 韓国은 「유엔」에서의 立場을 変更시킴으로써 잃는 것이 거의 없을 것이다. 韓国의 安保와 地位는 거의 「유엔」에 依存하고 있지 않으며 「유엔」의 介在는 속 빈 강정이다. (「유엔」韓国統一復興委員団 (UNCURK) 参加国수를 충분히 유지하는것 조차도 어렵게 될른지 모른다). 美軍将星이 駐韓「유엔」軍司令官의 자격으로 韓国軍을 指揮하는 体系는 韓美両国 間의 緊密한 協力 그리고 아마 現在의 指揮 体系까지도 攪乱시키지 않고 廃止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指揮体系는 韓国의 劣弱한 地位를 永久化하는 부정적 側面도 가지고 있다.) 참으로 非現實的인 「유엔」軍 指揮体系가 廃止되고 순수한 韓美両国間의 協定이 마련된다면 韓美両国間의 관계는 더욱 強化될는지도 모른다. 現存하는 「유엔」機構에 対한 韓国의 執着은 그 根底에 있어서 内務的 政治問題이고 歷史的 残存物이나 韓国国民들의 慎重한 変化態勢가 要求되는 感情的으로 커다란 重要性을 갖는 問題이다.

韓国은 또한 特히 「蘇聯과 東欧国家들과 같은 共産国들에 対해 積極的인 外交」를 시작해야 한다. "敵性"共産国家와 "非敵性"共産国家를 구별하기 위한 1970年의 貿易法規改正은 이러한 方向을 志向하는 하나의 작은 措置이지만 貿易및 다른 形態의 接触이 積極 追求되어야 한다.

韓国은 共産国家들과의 貿易拡張過程에서 實際的인 障碍가 있다 하더라도 自由中国이 이러한 努力過程에서 当面할 것과 같은 부담으로 힘들지는 않는다. 이러한 努力의 目的은 韓国의 国際的地位를 向上시키고, 非共産国家들은 勿論 共産国家들 間에 두개의 韓国観念을 공고히 하며 北韓과 그 友邦 共産国家들間의 摩擦을 惹起시키려는데 있다.

다른 部面에서는 大韓民国의 「이니셔티브」를 기다릴 必要가 없으나 그것은 앞서 提示된 変化의 当然한 附随物로서 나타날것이 분명하다. 韓国政府는 韓国国民들의 基本的인 反共姿勢가 攪乱되지 않아야 된다는 必要性에 敏感할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性格을 띄운 大韓民国의 企図는 蘇聯이 그들의 行動을 中共이 어떻게 特徵지울것인가를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蘇聯과의 관계에 있어서 커다란 成功을 거둘것 같지 않으나 時間이 감에 따라 蘇聯의 反応은 変化할른지도 모른다. 東欧는 韓国과의 貿易과 같은 問題에 있어서 좀더 積極的일른지도 모른다. 大韓民国은 北京과의 対話경로를 트는것이 可能한것임을 発見할른지도 모른다고 생각되고 있다. 「中共과 美国이 그들 問題를 다루기 위해 벌이는 진정한 努力」은 韓国問題에 深大한 影響을 미칠것이다. 여기서 돌연 우리는 이러한 努力이 일어나는 것을 곧 보게될것 같다. 이미 실질문제에 관한 美·中共間 対話의 분위기는 南北韓을 網羅한 韓国人들의 認識에 有益한 影響을 미쳐 그들로 하여금 보다 融通性을 갖도록 유도하고 있는것 같다. 勿論 美·中共間対話의 實際的 경과와 蘇·中共関係의 状態등에 依해 많은것이 左右될것이며 의심

할바 없이 이들 各国은 그들과 유대를 맺고 있는 南北韓에 対해 그들의 変함없는 지원을 再闡明하기 위해 애써 努力할것이다.

그러나 美·中共関係의 改善을 歓迎한다는 朴正熙大統領의 声明과 中共의 「닉슨」訪問受諾에 対한 金日成의 同意에도 불구하고 南北韓両側은 美·中共会談의 동기와 그들 盟邦의 지원문제에 관해 疑心을 품는 것이다. 이것은 이러한 会談이 韓国問題에 끼치는 第一次的인 主要結果가 될것이며, 美·中共間의 関係를 改善하려는 어떠한 真正한 努力의 長期化는 韓国問題를 有用하게 遅延시키는 또하나의 要因이 될 뿐만 아니라 이러한 疑心을 増加시킬 것이다. 台湾問題에 관해 進展이 이루어 질수 있다면, 北京과 平壌間에 見解差異를 惹起시키는것 이상의 可能性 특히 韓半島의 緊張状態를 緩和시키는 문제와 武器供給 및 韓半島에 대한 外国의 軍事的 介入문제를 真摯하게 考慮할 可能性이 열릴수 있다.

蘇聯은 中共에 대항하여 平壌에서의 그들 立場을 보호하기 위해 韓半島에서 慎重한 態度를 취해야 하는 처지에 있으나 그들은 韓半島에서 보다큰 安定을 이룩하고 事態를 緩和시키려는 希望을 거듭 表明해왔다. 美国이 蘇聯으로 하여금 이러한 関心을 갖게할 機会는 충분히 있으며 그것은 韓国問題에 관한 対中共会談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또한 韓半島에서 武器競争을 緩和 또는 제한해야할 必要는 절실한 것이며 이点에 있어서 進展이 이루어지려면 美·蘇両国間의 協力이 있어야 한다. 武器供給을 제한하는 協定에 도달하는데는 明白한 난관들이 있지만 이러한 方向의 努力은 비록 成功을 거두지 못한다 하더라도 또다시 南北韓의 認識에 対해 作用할 것이다.

韓国問題에 관한 美·蘇 両国間의 会談은 南北韓이 서로 相対方의 意図를 타진하기 시작하기 전이나 그后에 開始될 수 있다.
分明히 韓国과 日本은 적어도 緊密하게 提報를 받아야 할 것이다.

韓国問題에 관한 外交的 過程이 始作된 얼마后 이過程을 刺戟하기 위해 美国이나 日本 또는 그보다도 韓国은 韓半島의 緊張状態緩和에 主要한 초점이 주어질 東北 「아시아」安保会議를 召集할 수 있다. 이러한 会議는 위에 말한 6個 主要 당사국들이 参加해야 될것이지만 다른 나라들이 초청되어도 좋다. 참으로 다른 나라들의 参加는 6個国間의 討議에서 일어날수 있는 摩擦을 減少시키기 위해 아마 必要할 것이다.

独逸의 경우로 부터 계속 類推한다면 이러한 提案은 欧洲安保会議 開催案과 크게 類似하게 생각되는 것으로서 그것은 韓国의 分断을 是認하는 것이 될것이나 이를 楽観的으로 본다면 南北韓에 대한 武器供給制限과 같은 方式으로 情勢를 整理하는 수단을 강구하게 될것이다.

어떠한 会議의 重要한 結果는, 아마 단지 会議를 召集하는 目的 조차도, 協商過程과 이에 先行하는 모든 附随的 外交活動에서 当事者들을 얽어매는 것이다. 会議開催를 提案하는 方法과 開催時期는 具体的인 支配的 状況에 의해 左右되는 것이며, 이와 같은 어떠한 会議는 분명히 미리 잘 計劃되어야 할 것이다. 생각컨대 「닉슨」大統領의 닥아오는 中共訪問은 이러한 種類의 会議의 開催를 가져 올수도 있을 것이다.

당초의 「제네바」会議는 무엇 보다도 韓国문제를 다루기 위해 召集된 것이 었다. 周恩来는 最近 韓国문제에 関한 또하나의 이러한 会議를 召集하는데 賛成한것 같다.

만약 中共과 北傀의 주장이 信憑性이 있는 것이라면, 美国이 北傀 및 中共과의 協商에서 가지는 主要 武器는 美軍의 韓国駐屯이다. 駐韓美軍은 결코 中共이나 北傀와의 協商道具로 看做되어 오지는 않았으며 실상 美国撤収는 根本的으로 南韓과의 協商問題가 되어왔다.

中共은 지난 1958年 中共軍의 철수를 協商道具로 삼으려 했다. 그러나 그때는 時期가 무르익지않아 中共은 이러한 기도에 失敗했으나 어떻든 中共軍을 撤収시켰다. 만약 美国이 駐韓美軍을 어떻게 해서든 撤収시킬 것이라면 그렇게 하기 前의 어느時期에 美軍撤収는 어떤 点에서 協商問題가 된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유럽」의 경우를 계속 類推한다면 美軍追加撤収는 실제에 있어 美軍의 「유럽」駐屯과 相互 均衡있는 兵力減縮 (MBFR)에 관한 展望사이의 관계와 같이 類似하면서도 完全히 비교가 되지는 않는 바탕(南韓은 北韓에 대항하여 自身을 방위할 수 없다는 앞서 말한 생각을 갖지 않고)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美国은 南北協商의 成功度에 따라 적절한 時期에 部分的이거나 全面的으로 兵力을 철수시키며 韓半島의 緊張状態를 緩和시키기 위해 기타의 努力을 기울일 용의가 있음을 宣言해야 한다. 생각컨대 駐韓美軍問題는 東北「아시아」 安保会議의 主要議題의

하나가 될른지도 모른다. 그러나 적어도 可能性을 試驗해 봄이 없이 機会를 抛棄해서는 안된다.

(註 21: 前揭「레스턴」会見)

<変化에 따르는 危険과 困難> 外交的方向의 変化는 本質的으로 危険을 内包하고 있다. 그것은 変化過程을 処理하는 方法에 크게 左右되며 거기에는 또한 明白한 困難도 따르고 있다.

主要 문제는 南韓의 政治的 安定에 대한 影響이며 이것은 두가지 側面을 가지고 있다.

一첫째는 朴大統領의 政治的 立場에 加해 질수 있는 威脅이다. 朴大統領은 慎重해야 하며 北傀와의 協商에 관해 가장 懐疑的인 軍部를 疎外시킬 수 없다. 그러나 그는 機敏한 政治人이며 1971年度 選擧가 끝났기 때문에 政策変更을 할 수 있는 立場이 보다 나아 졌다. 그가 만약 融通性있는 態度를 選択한다면 政策変更의 速度와 性格을 둘러 싸고 韓国内에서 그리고 아마도 美国과의 사이에서 問題가 일어날 것이나 이것은 架橋할 수 없는 見解差異는 아니다. 그러나 만약 朴大統領의 態度가 계속 固定되어 韓国内에서 또는 韓美 両国間에서 深刻한 見解差異가 나타난다면 그의 立場과 그의 政府의 安定은 深刻한 威脅을 받을 수가 있다. 朴大統領은 아마 南韓内의 다른 어떠한 人物보다도 더욱 安全하게 政策変更을 遂行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事態가 일어 난다면 그것은 특히 不幸한 것이다.

一보다 基本的인 것은 南韓이 政治的으로 分裂되지 않고 北韓과

의 真摯한 "対話"에 参加할 수 있는 能力이다. 생각컨대 南北韓間의 문제에 있어서도 見解差異가 나타날 수 있으며 南韓人들은 그들 끼리 싸움을 벌여 政治的 団結을 弱化시키거나 北韓의 甘言利說에 誘惑 당하고 無秩序로 기울거나 또는 軍事独裁를 招来 할는지도 모른다. 南北協商의 複雜한 状況과 南北韓 交流의 開始는 北韓에 보다 큰 顚覆活動의 機会를 가져와 줄 것이다.

이 点에 있어서 北韓은 그의 全体主義的 性格으로 말미암아 南韓보다 優勢한 立場에 있다. 그러나 지금은 많은 南韓人들이 金日成은 根本的으로 韓国民族主義者라고 믿던 1948年이 아니다. 南韓은 北韓을 다루는데 있어서 20年의 經驗을 가지고 있으며 그 經驗은 모두가 저주스러운 것이다. 大韓民国은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에 대해 아무런 愛着을 갖고 있지 않으며 그들에 의해 "欺瞞" 당해서는 안된다. 더구나 朴大統領은 그 나름의 커다란 統制能力을 가지고 있다. 또한 北韓과 아마 中共이 韓美両国의 政策変更을 脆弱性의 징조로 보고 보다 好戦的인 路線으로 기울어 지게 되며 北韓의 경우에는 아마 攻擊을 開始할 危険도 存在하고 있다. 아무도 이러한 可能性을 排除할 수는 없으나 그 중에서도 大韓民国의 内部的 및 軍事的 힘, 韓国에 대한 美国의 言行, 美·中共関係 및 아마도 美国의 国内事態에 의해 많은 것이 左右 될 것이다. 위에서 시사된 形態의 政策変更은 北韓에 미치는 影響에 있어서 全美地上軍의 撤収보다 危険性이 적은 것으로 보인다. 만약 北韓이 平和提議에 建設的으로 呼応하

지 않는 다면, 이러한 努力의 無用性과 強力하고도 高度로 可視的인 美国沮止手段을 維持시킬 必要性을 이보다 더 잘 시사하는 것은 없다. 時期는 중요하며 政策変更은 追加的인 美軍再配置가 實施되기에 앞서 시작 되어야 한다. 그 後에는 誤解를 일으킬 念慮가 커질는지도 모른다. 美国의 外交的 姿勢変更은 東京과 서울, 平壤과 北京, 그리고 아마도 其他 地域에서 美国의 公約이 더욱 弱化되는 것이라고 看做될것으로 생각된다. 対決状態로 부터 벗어나는 政策의 変更은 어떤 것이든지 언제나 이러한 憂慮를 惹起시키고 있으며 그것은 率直하게 부딪쳐야 하는 冒険이다.

그러나 여기서 또다시 美国과 世界에서 発生하고 있는 다른 事態, 東京 및 서울에 대한 二辺的 関係의 地位 및 韓国과 東部 「아시아」 余他地域에 대한 美国의 言行에 많은 것이 달려 있다.

그러므로 이 모든 문제에 있어서 決定的인 要素는 美国의 政策, 美国이 사용하고 있는 修辞, 美国이 韓国과 「아시아」에서 취하는 行動이다. 韓美両国関係는 그 関鍵的인 要素이다.

ㅡ만약 朴大統領이 現政策을 固守한다면 美国은 조용한 説得을 넘어 서서 어느 정도 까지 有効한 措置를 취할 수 있는가? 美国은 朴大統領의 입장을 阻害하지는 않으면서 그로 하여금 보다 融通性있는 態度를 취하도록 誘導할, 그러나 朴大統領이 좋아 하지 않을는지도 모르는, 입장을 취할 用意를 가지고 있는가 (例컨대 「유엔」 内에서)? 美国이 하겠다고 提案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분명히 緊密하고도 계속적인 協議가 必要할것이다. 그러나 만약 하나

의 政策変更이 成功을 거두고 韓美両国関係에 危機를 招来하지 않을 것이라면, 여기에는 많은 修辞와 有形的인 形態의 支援이 必要할 것이다. 그러나 美国政府는 大韓民国뿐만 아니라 日本에 대하여 그들目的의 永久性을 再闡明함에 있어서 얼마나 明確한 말과 行動을 할 수 있을 것인가?

－美国政策과 外交의 柔軟性은 政策変更을 成功으로 이끄는데 있어서 主要한 要素가 되고 있다. 여기서는 누구도 지나치게 多血質이 될수 없다. 政府는 国内政治的 考慮에도 불구하고 많은 融通性을 가질수 있을 것인가? 官僚組織이 朴大統領에 대해 엄청난 予算上의 理由나, 国際的 危機나 또는 그의 政治的 「보스」들이 表明한 希望에 의해 推進되지 않는 主要 挑戦을 加하기를 꺼리는 것은 理解할만 하다. 美国政府는 그의 盟邦들을 安心시키고 敵들을 고무하지 않을 方案을 마련해야 될 뿐만 아니라 中共, 日本 및 蘇聯에 대한 相異한 政策要素들을 相互 関聯시켜야 하는데 이것은 本来 外交에 있어서 어려운 일인 것이다. 더군다나 여기에서 提示되는 外交的 努力은 美国에만 특히 適合한 것은 아니다. 그것은 종종 의미없는 外交的 「제스처」와 宣言, 不可侵条約案의 마련 및 이와 類似한 形式의 外交活動등 中共式의 外交的 놀음을 包含하고 있다.

上述한바는 政策過程을 説明하는것이며 細部的인 措置를 提案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本来 図式化하여 有用하게 分析하기가 困難

한 過程이다.

그것은 또한 그의 實際的 運用이 중요한 変数가 되어 있는 過程이다.

세번째 政策은 첫번째 政策보다 더 값비싼 것이나 絶対的인 의미에서는 그리 더 값 비싼 것이 아니며, 或者는 危險한 情勢와 이로 말미암은 가외의 沮止手段을 考慮할때 분명히 값비싼 것이 아니라고 주장 할는지도 모른다.

아마 가장 중요한 것은 韓国문제에 있어서 決定的인 日本的 局面을 直接 다룰수 있는 唯一한 政策이 바로 이것이라는 点에 있다. 日本은 분명히 韓半島에서 関鍵的인 役割을 担当하고 있으나, 그役割이 더 큰 敵対関係와 紛争을 招来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緊張緩和의 雰囲気속에서 遂行되어야 한다. 거꾸로 日本의 再武装을 要求하는 圧力은 이 地域의 緊張状態가 緩和되는 정도에 따라 減少되고 있다.

첫번째 選択에 있어서 韓半島에서의 日本의 役割은 믿을수 있는 当事者가 아니라 運命에 맡겨지는 것이다.

日本政府는 朴大統領의 立場과 国内安定이 韓国의 対北韓政策 変更에 의해 危殆롭게 되지 않는다고 믿는 한 이와 같은 一般的인 観点에서 세번째 政策을 바랄것 같다. 日本은 결국 対北京 関係와 韓国에서의 活動에 관한 選択문제에 부닥치기를 바라지 않고 있다. 南北韓間의 緊張緩和는 志向하는 움직임은 이들이 이러한 選択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展望을 어느정도 주고 있다.

누구도 이러한 過程이 意図한 대로 進行되리라고 自信있게 予測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外交的 努力이 失敗를 하더라도 韓美両国側이 전혀 試錬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좀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 할 수는 없다. 美軍戰闘兵力의 撤収는 韓国문제에 관한 韓美両国의 外交戰略変更 보다도 韓国의 安定에 훨씬 더 危険한 것이다. 만약 이러한 兵力撤収가 어떻게든 이루어질 것이라면 美国과 韓国은 그 댓가로 그 무엇 그것도 相当한 그 무엇을 얻도록 努力해야 할 것이다.

더구나 이러한 努力을 試図했다가 失敗한다 하더라도 몇가지 利得은 있다.

- 그것은 公共然하게 그리고 「유엔」에서 韓美両国의 立場을 強化할 것이며 韓国과 美国은 緊張緩和를 위해 真正한 努力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 目撃될 것이다.
- 韓美両国의 融通性과 誠意에 관한 시사를 줌으로써 그리고 韓国国民들에게 対北韓協商의 어려움을 새삼 實證함으로써 韓国指導者들은 그들의 国内的 立場을 強化할 수 있다.
-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努力이 가져다 줄 美軍의 韓国駐屯을 維持시키기 위한 證據와 根據이다. 만약 現時点에서 韓半島의 緊張状態緩和가 不可能한 것임을 보여 줄 수 있다면 美国政府는 美軍戰闘兵力의 韓国駐屯을 延長시키기 위한 진상을 구체적으로 強化하는 것이 될것이다.

만약 韓国이 外交的인 方法을 試図하여 失敗에 부닥치고 美国이

駐韓美軍을 여하튼 撤收시킨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은 勿論 現實的으로 可能한 것이다. 그것이 어떠한 意味를 가질 것이냐는 명백치 않다. 時期는 중요할 수가 있기 때문에 兵力減縮을 外交的努力이 失敗한 직후에 이루어져서는 안되며 또 그렇게 할 것 같지도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可能性으로 말미암아 韓国이 脆弱하기 때문이 아니라 金日成이가 危險한 存在이기 때문에 美軍의 韓国駐屯이 必要하다는 公開的인 修辞가 요구되고 있다.

美国의 修辞 즉 「닉슨·독트린」은 이에 따른것이다.

이러한 姿勢를 취한다 해서 美軍의 韓国駐屯문제를 韓国의 対北韓協商方法에 맡길수는 없다. 10年前의 状況 아래서는 그러했을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美国과 東部「아시아」의 現雰囲気는 이와 판이 하게 다르며 우리가 美軍의 韓国駐屯 延長을 云謂할때 그것은 기껏 数年間을 두고 말하는 것이다.

「아델피」 報告書

다음은 既発行 文書中에서 選定한 것으로서 25「펜스」(75「센트」)로 本研究所에 注文할 수 있음. 送料는 無料

No.41. 「이스라엘」과 「아랍」世界 : 1967年의 危機(ISRAEL AND THE ARAB WORLD: THE CRISIS OF 1967) Michael Howard, Robert E. Hunter 1967年10月 発行.

No.45. 「유럽」의 変化와 安保, 第1部 : 背景(CHANGE AND SECURITY IN EUROPE, PART I: THE BACKGROUND) Pierre Hassner 1968年 2月

No.49. 「유럽」의 変化와 安保, 第2部 : 体制의 研究(CHANGE AND SECURITY IN EUROPE, PART II : In SEARCN OF A SYSTEM) Pierre Hassner 1968年 7月

No. 53. 「페다옌」의 行動과 「아랍」戦略(FEDAYEEN ACTION AND ARAB STRATEGY) Y. Harkabi 1968年 12月

No. 57. 印度洋과 太平洋 : 戦略的 考察(THE INDIAN AND PACIFIC OCEANS : SOME STRATEGIC CONSIDERATIONS) T. B. Millar 1969年 5月

No. 58. 「바르샤바」同盟의 展開 (THE EVOLUTION OF WARSAW PACT) Malcolm Mackintosh 1969年 6月

No. 59. 蘇聯의 対中東「딜레마」: 第1部 : 公約問題(THE SOVIET DILEMMA IN THE MIDDLE EAST: PART I: THE PROBLEM OF COMMITMENT)

Robert E. Hunter. 1969年 9月

No. 60. 蘇聯의 対中東「딜레마」: 第2部 : 石油와 「페르샤」 湾 (THE SOVIET DILEMMA IN THE MIDDLE EAST: PART II : OIL AND THE PERSIAN GULF) Robert E. Hunter 1969年10月

No. 61. 英国의 国防政策 : 오랜退場 讃美歌 (BRITISH DEFENCE POLICY: THE LONG RECESSIONAL) L. W. Martin 1969年11月

No. 62. 北大西洋条約機構의 軍兵站体制 : 統合目標第1部 : 經済的側面 (MILITARY LOGISTIC SYSTEMS IN NATO:THE GOAL OF INTEGRATION, PART I: Economic ASPECTS) Geoffrey Ashcroft 1969年 12月

No. 63. 発展된 戦略「미사일」: 要覧 (ADVANCED STRATEGIC MISSILES : A SHORT GUIDE) Ian Smart 1969年12月

No. 64. 戦略問題의 研究 (SURVEY OF STRATEGIC STUDIES) 1970年1月

No. 65. 美・蘇関係와 世界秩序 : 武器制限과 政策 (SOVIET-AMERICAN RELATIONS AND WORLD ORDER : ARMS LIMITATIONS AND POLICY) 「세베닌겐」会議 文書 1970年3月

No. 66. 美・蘇関係와 世界秩序 : 2大国과 多数国 (SOVIET-AMERICAN RELATIONS AND WORLD ORDER : THE TWO AND THE MANY) 「세베닌겐」会議 文書 1970年3月

No. 67. 「아프리카」国들의 軍隊, 1970年 (THE ARMED FORCES OF AFRICAN STATES, 1970) Richard Booth 1970年5月

No. 68. 北大西洋条約機構의 軍兵站体制 : 統合目標 : 第2部 : 軍事的側面

(MICITARY LOGISTICS SYSTEMS IN NATO : THE GOAL OF INTEGRATION : PART Ⅱ : MILITARY ASPECTS) Geoffrey Ashcroft. 1970年6月

No. 69. 倫理와 沮止: 볼모 都市가 없는 核均衡은? (ETHICS AND DETERRENCE : A NUCLEAR BALANCE WITHOUT HOSTAGE CITIES ?) arthur Lee Burns 1970年7月

No. 70. 1970年代의 「유럽」과 美国 Ⅰ : 緊張緩和와 対決의 사이 (EUROPE AND AMERICA IN THE 1970S : I : BETWEEN DETENTE AND CONFRONTATION) 「에비앙」会議文書 1970年 11月

No. 71. 1970年代의 「유럽」과 美国 : Ⅱ : 社会와 勢力 (EUROPE AND AMERICA IN THE 1970S : SOCIETY AND POWER) 「에비앙」会議文書 1970年 11月

No. 72. 軍兵力과 政治的 目的 (MILITARY MANPOWER AND POLITICAL PURPOSE I Erwin Häckel 1970年12月

No. 73. 慎重한 同伴者 : 蘇聯과 「아랍」 社会主義 (WARY PARTNERS : THE SOVIET UNION AND ARAB SOCIALISM) Robin Buss, 1970年 12月

No. 74. 多国企業과 国家安保 (MULTINATIONAL ENTERPRISE AND NATIONAL SECURITY) Reymond Vernon 1971年1月

No. 75. 戦略武器制限会談에 대한 蘇聯의 態度 (SOVIET ATTITUDES TO SALT) Lawreuce T. Caldwell 1971年2月

No. 76. 技術, 運營 및 蘇聯軍編制 (TECHNOLOGY, MANAGEMENT AND

THE SOVIET MILITARY ESTABLISHMENT) David Holloway, 1971年4月

No. 77.戰略的 平衡의 政治的 意味 (THE POLITICAL IMPLICATIONS OF STRATEGIC PARITY) Walter Slocombe 1971年 5月

No. 78. 条件附 未来: 英仏核協力展望 (THE PROSPECT FOR ANGLO-FRENCH NUCLEAR COOPERATION) Ian Smart 1971年7月

No. 79. 都市「게릴라」戰術 (URBAN GUERRILLA WARFARE) Robert Moss. 著 1971年8月

「아델피」文書를 多数 注文하는 경우의 割引價格은 다음과 같다.

1巻 – 10巻, 25「펜스」(75「센트」)

11巻 – 100巻, 21「펜스」(65「센트」)

101巻 以 上 20「펜스」(60「센트」)